

제 9 절

일반 행정

1.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추진
2. 열린 도정 구현
3.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운영
4. 도민 만족의 행정환경 조성
5. 도정의 기획조정
6.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7. 법무행정의 선진화
8. 지방행정의 정보화
9.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
10. 인사 · 기구 관리 및 지방분권 추진
11. 지역인재 양성
1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제9절 일 반 행 정

1.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신항지구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풍부한 자원보전과 미래지향적 활동, 연안의 개발과 보전, 새로운 자원기술, 창의적인 해양활동을 목표로 진행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약 100여개 국가,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16개 지자체 등이 참가 예정이며 내외국인 약 80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2조 38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박람회장 전체규모는 총 1,745천m²로 주제관, 국가관, 기업관, 국제기구관 등이 들어설 박람회장(250천m²)과 박람회 참가 종사자들의 숙박단지인 엑스포타운(536천m²), 환승주차장(440천m²)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전국적으로 생산 12조 2,328억원, 부가가치 5조 7,201억원, 고용 7만 8,833명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전남지역에는 생산 5조 1,532억원(전국대비 42.1%), 부가가치 2조 4,267억원(42.4%), 고용 3만 3,788명(42.9%)의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향후 전남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국제행사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추진 체계 구성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

2007년 11월 27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이 2008년 3월 14일 제정되었다. 특별법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위원장:국무총리), 박람회관련 SOC와 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정비 사업 등의 재정지원,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정부지원위원회 활동

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8년 4월 7일에는 정부·국회, 재계, 학계 등 각계인사 110명으로 구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직접시설 설치·관리, BIE 회원국 박람회 참가 유치활동 등 박람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박람회 개최지역인 전남지역 인사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하여 오현섭 여수시장, 김윤수 전남 대학교 총장과 여수출신 김성곤, 주승용 국회의원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활동 하고 있으며, 박인환 도의회 의장, 황금추 2012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 노진영 前2012여수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장,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김광현 여수시 준비위원장, 송영수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김명수 순천대학교 인문대학장, 박용하 前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현재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사항의 체계적인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구성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하여 각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엑스포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지원방안 심의·조정, 여수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별 중점지원과제를 선정하는 등 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동안 3차례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주고 있다.

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구성 · 운영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전개했던 지방유치위원회(위원장 노진영)는 유치성공이라는 목적달성을 2008년 4월 10일 해산하게 되었다. 이후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민간지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2여수세계 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가 창립되었다.

(1) 창립총회 개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기구인 범도민지원협의회가 2008년 4월 29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도민지원협의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협의회 의장으로 황금추 동광건설 회장을 선출하고 부의장 5명, 감사 2명을 각각 선임했으며 앞으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의 준비역량 결집,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홍보활동, 각종 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2)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지역의견 수렴 건의

범도민지원협의회에서는 동년 10월 8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철신 집행위원장 선임과 함께 사업계획 및 각종 규정 등을 제정

하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 취합된 지역의견에 대하여 조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직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여수박람회 홍보활동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노력 필요, 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조직위원회 건의(세계적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 엑스포타운내 한옥단지 건립 등), 조직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이다.

1-3. 중앙 및 지방 박람회 성공개최 추진계획 수립

가.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 당시 기본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기본계획은 조직위원회 창립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졌으며, 9월 서울 공청회와 여수지역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이 정해져 2008년 12월 제144차 BIE총회의 인정 승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에는 주제구현 시설물로 빅 오(Big-O), 다도해공원(Coastal Triangle), 엑스포 디지털가로(Expo Digital Avenue)가 있으며, 빅 오는 우리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아쿠아리움과 바다 생태계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오션타워, 바다길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다도해공원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를 1/1,000로 축소한 지형으로 설치하며 인공적인 연안(갯벌, 모래사장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엑스포디지털가로는 여수 구시가지와 박람회장내에 위치한 KTX역사 사이의 600m 구간을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가로로 조성하여 IT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도에서 건의한 엑스포타운내 한국전통양식의 한옥단지를 조성 등도 포함되어 있어, 아쿠아리움과 한옥단지 등은 박람회기간은 물론 개최 이후에도 여수의 중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여수세계박람회 도 종합 지원계획 수립·운영

‘여수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박람회 종합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2008년 7월부터 22개 시군의 박람회관련 주요사업을 취합하였으며 도에서 각 사업별 타당성 분석을 통한 선별과정을 거쳐 박람회조성 지원, 문화학술 지원, 관광 지원, 숙박 지원, 교통 지원, 홍보 지원, 엑스포 손님맞이, 사후활용 분야 등 8개 분야에 걸쳐 주요 지원사업 위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도 종합 지원계획은 앞으로도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할 세부실행계획을 반영해 나가고 중앙부처 국비확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1-4. 2008 사라고사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전개

가. 「한국의 날(National Day)」 공식행사 참가 홍보

2008사라고사박람회는 6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93일 동안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스페인 사라고사시내 에브로강 주변에서 개최되었다.

106개의 참가국을 대상으로 National Day를 운영하고 있어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하여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7월 16일 「한국의

날」 행사에 한국 공식대표로 참가하여 사라고사조직위원장 주최 오찬 및 전통문화공연을 관람하는 등 공식행사에 참석하였다.

사라고사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의 날(National Day)로서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된 「한국의 날」은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대왕정조를 소재로 한 퓨전국악공연과 ‘한국의 밤 - 그 열기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난타공연은 많은 관광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한 사라고사시민은 ‘한국의 전통무용과 음악이 매우 이국적이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국관내에는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어 유럽관광객과 스페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영상과 그래픽, 키오스크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어, 여수세계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나. 「BIE의 날」 행사 및 한·서 문화교류 축제 참가 홍보

사라고사박람회의 폐막을 앞두고 세계박람회기구(BIE)의 날 행사에서 차기 박람회 개최국인 한국, 중국, 이탈리아 3개국의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전남도 도립국악단은 세계 각국의 대표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고춤과 장고가 한데 어우러지는 흥겨운 전통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관 앞에서도 방문객들을 위한 사물놀이 공연을 진행하여 스페인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는 등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에 열과 성의를 다했다.

이어 14일 사라고사박람회 폐막일 행사에서는 스페인 국왕과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인정박람회 개최지인 여수를 대표하여 장승우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이 BIE 사무총장으로부터 BIE

기를 인수받았다.

또한 스페인 한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스페인과 한국 양국 박람회 개최 기념 ‘한·서 교류축제 행사’에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도립국악단의 전통문화공연을 펼쳐 현지교민과 현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박람회에 홍보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1-5. 각종 국내 홍보활동 전개

가. 전국 주요 축제 및 행사장 여수박람회 홍보

여수세계박람회 국내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2008 해양포럼 및 조선기자재 전시회를 시작으로 제4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강진청자문화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명량대첩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국평생학습대축제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에서는 개최기간 총45일 동안 함평, 무안, 나주, 장성 등 의 여수엑스포 홍보자원봉사단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개최 준비를 위한 개최권역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동안 서울과 여수에서 ‘해양과 기후변화’ 및 ‘박람회 기본구상·기본계획’을 주제로 개최되어 박람회 주제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과 해양관련 주제의 필요성 등을 더욱 부각 할 수 있었으며, BIE사무총장 및 국내외 석학과 관련 연구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여수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우리지역에서 해양 보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여수신항 바다살리기 대회, 박람회 유치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및 세미나 등이 개최되어 성공개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 박람회 관심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이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등에 홍보리플렛을 귀성객 및 귀경객에게 배부하고, 광주·전남 주요 지점 육교 등 다중이용장소 31개소에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고속도로 주요톨게이트에 관광전남과 여수박람회 개최지역임을 홍보하였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홍보하기 위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용이 많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등을 대상으로 라이트박스 광고를 실시하여 박람회 관심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청 윤선도홀에 박람회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축소 조감도 모형을 제작·설치하였다. 조감 모형은 3m × 2.5m 크기로 남녀노소가 조작하기 쉽도록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제작하여 도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여수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전남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다. 지속적인 SOC확충 및 숙박시설 조성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内外국 관광객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SOC와 세계각지에서 찾아오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고급숙박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에서는 박람회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확충사업과 고급 숙박시설의 민자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국도 17호선 확장, 전라선 복선 전철화,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 SOC확충사업이 박람회 이전인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표 2-402> 여수세계박람회 SOC사업 예산현황

(2008. 12월말 현재)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km)	사업비(억원)				총공정(%)	시행청
				계	'08까지	'09추진	'10이후		
	합계	14건	504.6	82,615	35,251	12,791	34,573	42.7	
고속도로	전주 ~ 광양	'04~10	118.0	19,614	11,986	3,758	3,870	61.1	도로공사
	목포 ~ 광양	'02~12	106.8	19,100	8,623	2,620	7,857	45.1	"
철도	전라선(의산~순천) 복선전철화	'02~11	154.2	9,569	3,939	1,300	4,330	41.1	철도시설공단
	순천 ~ 여수 복선전철화	'00~11	40.0	6,429	3,807	1,900	722	59.2	"
국도	17호선자동차전용도로 (해룡 ~ 덕양)	'04~11	15.1	2,480	1,255	355	870	50.6	의산청
	주삼~덕양	'07~11	2.7	875	115	100	660	13.1	"
	국도17호 대체우회	둔덕~주삼	'00~10	6.8	2,317	1,787	280	250	77.1
	도로	종화~둔덕	'99~09	8.2	2,282	1,905	170	207	83.5
		우두~종화	'04~10	1.4	943	352	162	429	37.3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적금~영남	'03~12	3.0	2,145	524	255	1,366	의산청
국지도		화양~적금	'08~12	17.5	4,834	20	150	4,664	기본설계
	국지도22호선 확장 (소라 ~ 화양)	'06~12	22.0	2,327	39	41	2,247	실시설계	전라남도
기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05~12	8.5	8,800	899	1,700	6,201	10	"
공항	여수공항 확장 (2.1 → 2.4 km)	'08~11	0.4	900	예타 완료	-	900	-	국토해양부 (공항계획)



여수박람회지원관실 여수박람회지원관 홍경섭, 기획홍보담당 김 용,
지원담당 박형수, 담당자 고성남

2. 열린 도정 구현

2-1.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가. 개요

민선자치 4기 첫 해를 맞이하여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이라는 도정 목표의 조기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치, 풍부한 자원 등 전남의 가능성을 비롯한, 투자유치, 관광, 친환경 농업 등 주요 도정시책을 언론, 인터넷, 전남새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알리는데 노력해 왔다.

나. 다양한 도정활동 홍보

(1) 대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도정홍보 극대화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 도정소식을 1일 7~8건씩 TV·라디오방송 22개사와 중앙지·지방지·통신사 등 30개사, 그리고 전라남도 홈페이지, 전남새뜸 등에 게재하고 E-mail 을 통해서도 도민 4만 5천여명에게 주 1회씩 제공해 왔다. 또한 주간 도정브리핑을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하고 실·국 현안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출현하는 도민과 만남 의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알림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다.

<표 2-403> 언론매체 현황

☞ 신문사(28사)

구 분	언 론 매 체
지방(14사)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남일보, 남도일보, 광주 매일, 전남도민일보, 일간아침신문, 호남매일, 호남일보, 전광일보, 대한일보, 남도투데이

구 분	언 론 매 체
중앙(14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 통신사(2사)

구 분	언 론 매 체
통신(2사)	연합뉴스, 뉴시스

❖ 방송사(22사)

구 분	언 론 매 체
TV (8사)	광주(KBS, MBC, KBC), 목포(KBS, MBC), 여수(MBC), 순천(KBS), YTN
라디오 (14사)	광주(KBS, MBC, KBC, CBS, BBS, PBC, TBN, wbs), 목포(KBS, MBC, 극동), 여수(MBC), 순천(KBS, CBS전남방송)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지원담당 방옥길, 담당자 최승호

(2) 녹색의 땅 전남새뜸

도정의 종합홍보지인 녹색의 땅 전남새뜸은 매월 2회(5일·20일) 타블로이드판으로 매회 6만부를 발행하여 행정·유관기관, 터미널 및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 장소에 직접 배부하고 출향인사 등에게는 우편직송(Direct Mail)을 통해 배부하고 있다.

매회 16면으로 친환경농업, 투자유치, 관광 등 도정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의회, 시·군정, 열린마당, 글밭, 사람들, 특집기획 등 각 면별로 내실있게 편집·발행함으로써 도정 종합홍보지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획연재 ‘섬이야기’,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하는 남도체험 여행’ 등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남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기획담당 최두주, 담당자 정명섭

(3) 도정자료집 발간

도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기념식 및 행사의 축·고사 및 기고문, 그리고 언론과의 대담 및 인터뷰 내용 등을 담은 연설문집을 발간하여 실과, 사업소, 시군과 읍면동, 언론기관, 타 시도 등에 배포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의 업무수행 참고자료와 도정 사료로 활용하고 도민과 외부에는 전남의 홍보와 비전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실적은 ‘81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왔으며 2004년도에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 실현’에 이어 2006년도에 민선 3기 후반기(‘04. 6~‘06. 6)의 도정 발자취와 성과,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담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600부를 발간하였다.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기획담당 최두주, 담당자 정명섭

2-2. 적극적인 도정홍보 업무추진

가. 개요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정홍보 효과 측정 및 TV·라디오·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 있으며, 도민들의 진솔한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도민명예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나. 적극적인 도정홍보 업무의 추진

(1) 모니터 활동

도정홍보의 효율화는 물론 수렴한 여론을 정책평가,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일 도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제공하고 있다.

신문 21개사(지방지 8개사, 중앙지 14개사), TV-방송 11개사, 라디오 방송 4개사 등 중앙과 지역 언론매체 총 36개사를 대상으로 1일 3~4회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내용은 '전라남도 행정포탈' 게시판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여 도정 운영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분기별 보도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도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관리담당 장경문
담당자 양원길, 권병근, 양미숙

(2) 정기간행물 지도 · 관리

정기간행물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등록업체의 건전한 육성 관리로 지역사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미창간하거나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정기간행물에 대해 시정 및 자진폐간을 유도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문법위반업체 7개소에 대하여는 직권등록취소 하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들의 알권리 보호에 앞장서오고 있다.

<표 2-404>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구 분	계	일간신문	일반주간	특수주간	잡 지 기타간행물	인터넷 신 문
도	204	2	77	11	28	86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기획담당 최두주, 담당자 조순복

2-3. 라디오 방송 도정홍보 프로그램 운영

가. 라디오 방송 도정홍보프로그램 운영

도정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목포MBC·여수MBC·광주CBS 등 7개 라디오방송 도정홍보 고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간 단위로 도정 주요 현안사업, 새로운 제도, 공지사항 등을 대담식으로 방송하였으며, 매주 2~3회 방송하였다.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기획담당 최두주, 담당자 방준환

2-4. 도정 홍보효과 측정

가. 개 요

도정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민의 인지도를 측정하고, 도정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홍보계획 수립 및 각종 시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나. 도정홍보 효과 측정 및 반영

조사 표본은 경제통상, 농정, 해양수산, 관광문화, 복지여성, 건설교통 등 도정 주요 분야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우리 도에서 구축활용하고 있는 ARS 전화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통계처리 패키지(SPSS)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홍보업무는 물론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관리담당 장경문, 담당자 김은경

2-5. 도민 명예기자 위촉 운영

가. 개요

평소 주요도정시책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지역소식과 축제, 관광자원 등을 ‘녹색의 땅 전남새뜸’에 기고하는 등 쌍방향 홍보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민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해 오고 있다

나. 도민 명예기자 위촉운영

도민명예기자의 위촉 인원은 총 150명이며 이중 주부명예기자는 100명으로 지난 2008. 8. 1위촉하여 2010. 7. 31까지 2년간, 그리고 학생명예기자는 50명(대학생 23, 초등학생 27)으로 2007. 9. 28일부터 2008. 12. 31까지 1년 3개월간 명예기자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는 학생명예기자 대신 사진·영상명예기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주부명예기자는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다양한 사회활동과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주부를 선발, 위촉하였으며 학생명예기자는 글솜씨가 뛰어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학교에서 신망을 받고 모범생을 선발 위촉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84명의 도민명예기자가 1,029건을 투고하여 396건이 전남새뜸에 게재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도민명예기자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워크숍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주부명예기자들의 글솜씨를 모은 '전라도 아줌마들의 수다'라는 문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1년 동안 도정의 적극적인 홍보 등 활동성과가 뛰어난 명예기자 17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공보관실 공보관 배양자,
홍보기획담당 최두주, 담당자 정명섭

3.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운영

3-1. 열린 감사행정 실현 및 사전 예방위주의 정책감사 실시

가. 열린 감사행정 실현

(1)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

우리 도에서는 전남의 공직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부지런하다”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비리재발 방지와 감사행정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자체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각 기관별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주요지적사례를 중심으로 道 홈페이지(감사관실 공지사항)에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열린행정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도민 명예감사관제 운영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열린감사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 47명을 위촉하여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아울러 시·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및 공사현장 기동감찰 등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였고, 특히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현장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나. 사전예방 위주의 정책감사실시

(1) 종합감사

2008년도에는 9개 도 소속기관, 11개 시군 등 총20개 기관에 대해 연인원 19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총 1,24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하여 주의·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고, 154억 40백만원을 감액(설계변경 등)하거나, 추징,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소극적 행정으로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79명을 문책한 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84명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행정의 기본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9년에도 수감기관을 도와주는 지도위주의 컨설팅감사 등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감사요원의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다.

(2) 테마감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민 생활과 밀접한 농업기반시설사업,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 취약 업무를 선정하여 테마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상 위법·부당한 사항 77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조치 하였고, 231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관련공무원 74명에 대해 문책조치 하였다.

(3) 공직감찰

관행적 금품수수와 업체와의 구조적 유착비리 등을 척결하고 취약 시기의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방감사 차원에서 4회에 걸쳐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41건을 적발하여 행정상 시정·주의 조치하였고, 관련공무원 38명에 대하여 문책조치를 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다.



감사관실 감사관 임근기, 감사담당 고성혁, 공직감찰담당 신현숙,
담당자 신영균, 임현근

3-2.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감찰 실시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 시·군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5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20개 사업장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공사비 882백만원을 감액 및 재시공토록 하였으며, 시공·감리업체 22개회사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조치 하고, 현장기술자 2명은 과태료 부과, 8개회사에 대하여는 부실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분하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부실공사가 용납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현장관리와 시공 상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 하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기술능력 부재, 재정상태 열악 등으로 인한 조잡시공 우려가 잠재하고 있음으로 2009년에도 대학교수·민간전문가와 함께 부실공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표 2-405> 2008년 부실공사방지 민·관 합동 감찰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 천	건 축	기 타
지적 사업장	18	6	3	1	2	6
지적 건수	49	12	7	3	7	20



감사관실 감사관 임근기,
기술감사담당 신태욱, 담당자 정영수

4. 도민 만족의 행정환경 조성

4-1.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

(1) 공무원 친절운동

공무원의 친절은 도민에 대한 의무이자 기본적인 대민 서비스이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각자의 친절마인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교우위 자원은 인적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공무원조직부터 변화하고 이를 도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키기 위하여 '99. 4월부터 3Best운동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 ① 친절서비스의 체질화를 통하여 가장 친절한(Sweet) 공무원이 되기
- ②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을 감찰지구로 선정하여 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장 깨끗한(Clean) 공무원 되기
- ③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1사 1담당제) 및 규제완화 사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해결함으로써 가장 부지런한(Diligent) 공무원 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민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청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등 다 함께 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신도청 이전과 함께 민원실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

써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2) 동부출장소운영

도청 이전후 원거리 동부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 및 접근도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2005년 10월 21일 동부출장소를 개소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및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 민원 후견인제 운영

복합 및 다수인 민원 등의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유능한 중견공무원 47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서류 보완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이해와 민원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휴무일 민원상황실 운영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민원접수 창구를 개방하여 방문객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65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방법이 사진 전사식에서 전자여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뀐 여권신청서식 작성안내 등 휴일 없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실장 배양자, 민원봉사담당 조정훈,
담당자 김현철 정훈조, 조신석

4-2.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

가. 친환경적인 도민중심의 민원실 구성

동북아시대의 거점이 될 남악 신청사에서 최상의 민원 감동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환경을 일대 혁신하였다. 특히, 남도의 특징을 이미지화한 친환경적이며 도민 중심적인 전국 제1의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여 도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최초로 민원 접수대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민원인이 1대1로 마주 앉아 거리감 없이 대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전원에게 전통의상을 디자인해 민원복을 착용하여 친근감을 제고하였다 또한, 실내에 정자 및 인공폭포 등 자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계절별로 실내 환경을 재구성하는 한편 지역특산품(강진청자,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하며 민원실 주변행사(사진전, 동양난, 수석 전시회 등)를 추진하여 전 국민이 찾아오는 명소로 운영하고 있다

나. 수요자 중심의 감동서비스 제공 틀 마련

종합민원실에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과 직장인 등 주간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여권 야간 접수창구 운영(18:00~21:00)과 토요 여권 민원창구 운영(매주 토 10:00~16:00) 및 도서·벽지 여권 신청 민원을 위한 여권 현장 접수제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여권발급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조성하여 전국에 귀감이 되고 있는데 미수령여권 쳐분방법 개선, 발급여권 대리수령에 따른 교부절차 간소화 추진, 습득여권 명의인에게 보관 관리상황 통보 및 우체국택배제 시행, 여권 신청취하에 따른 조치개선 등은 우리도만의 특별한 시책으로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 시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 외에도 여권 영문성명 변경 제도개선 등 다수시책은 관련규정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중앙 해당 부처에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실장 배양자,
민원봉사담당 조정훈, 담당자 정훈조

4-3. 고충민원처리 내실화

가. 고충민원 전담부서 운영

도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민의 소리팀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고충해소 노력과 민원재발 방지로 도정에 대한 신뢰제고는 물론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고충민원제출 창구 다양화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민원메신저 전용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당직실을 이용, 24시간 접수체제를 갖춤으로써 도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사이버 민원처리 강화

도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 도 홈페이지 내에 「도지사에게 바란다」와 「민원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는 「민원메신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라. 현장여론 수렴 및 사후관리 철저

각계각층의 도민들로 구성된 민원메신저를 활용하여 도정시책에 대

한 도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추진 중인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표 2-406> 고충민원 처리절차



<표 2-407>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현황

구 분	계	서 면	인 터 넷
2008	2,621	1,272	1,349
2007	2,684	1,417	1,267
2006	2,429	1,364	1,065
2005	2,953	1,353	1,600
2004	2,732	1,481	1,251
2003	2,623	1,245	1,378



종합민원실 실장 배양자, 도민의 소리담당 김양수,
담당자 장방진, 김계홍, 박성우, 공정희, 최임숙

4-4. 도민에게 열린 친환경 청사관리

가. 추진배경

청사주변 열린광장 등 공간별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열린 친환경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나. 추진과정

청사 내부에 녹색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그런 전남이미지를 제고하고 편의 시설 확충으로 도민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목포와 무안 전남 서남부 지역에 이렇다할 현대적인 시설의 전시행사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전남도청이 전시컨벤션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실·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최적의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일일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소규모 수선 공사는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 보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청사주변의 친환경 생태녹지 공간 확대 및 휴게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도청사를 찾는 도민들이 휴식과 감동을 느끼도록 추억의 명소로 제공코자 하며, 앞으로도 청사시설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개방하여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효율적인 청사운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청사관리담당 정동환, 담당자 곽춘섭

5. 도정의 기획조정

5-1. 정책실명제 확대 시행

가. 시행목적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행정의 신뢰성 강화 및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였다.

나. 실명대상 및 공개범위

실명대상 정책은 ▶ 20억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향상 및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등이다.

공개범위로는 원칙적으로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설질에 따라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등으로 설정한다.

다. 공개실적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취합·정리하여 반기별로 도청홈페이지와 도보(전남새뜸)에 게시한다. 2008년도는 기획조정실 14건, 경제과학국 11건 등 총 117건을 발굴하여 게시하였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정책개발담당 장현범, 담당자 조재술

5-2. 도의회 운영

가. 제8대 도의회(2006. 7 ~ 2010. 6 : 4년)

제8대 도의회는 2006년 5월 31일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등을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어 구성되었으며, 22개 시·군에서 임기 4년의 지역구의원 46명과 비례대표 5명을 포함해 51명이 선출되어 동년 7월 7일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당시 도의회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민주당 46명, 열린우리당 3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전반기 원구성 임기가 2008년 7월 6일 완료되어 후반기 원구성이 2008년 7월 7일 되었으며 개원식에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에 박인환 의원, 부의장에 홍이식, 이호균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6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기획행정·경제관광문화·건설소방·교육사회·농수산환경위원회)상임위원장은 선출하는 등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으며 이들의 임기는 2009년 6월 30일까지이다.

한편, 도의원 정수는 51명이지만 민주당소속 장홍 2선거구 출신 이민우 의원이 2008년 11월 11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도의원은 50명이며, 정당별 구성현황을 보면 민주당 48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참고로 보궐선거는 2009년 4월 29일이다.

<표 2-408>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단위 : 명)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경 제 관광문화	건설소방	교육사회	농수산 환 경
위원장	6	박홍수	양승일	이종현	송범근	김성호	정환대
위원수	49	10	9	10	10	10	10

※ 위원수에는 의장은 미포함

나. 회기운영

(1) 회기운영 개요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기는 의회가 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내에서 연 2회 정례적으로 집회되는 정례회와 필요시 수시로 집회되는 임시회로 구분된다.

회기는 광역의회의 경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55일 이내로, 임시회의 경우는 1회 15일 이내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최시기와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남도의회는 제15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결로 9,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정하였다.

이후 제203회 임시회에서 매년 7월 1일과 11월 15일에 집회하고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고 개정하였다.

(2) 회기운영 실적

2008년 회의개최는 모두 8회(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개회일 수는 115일(정례회 52일, 임시회 63일)로 나타났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한 회의일수는 66 일이었다.

한편, 전남도의회의 1년 동안 회기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 제1차 정례회는 7. 1 ~ 7. 15일까지 15일간으로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37

일 동안 2009년 회계년도 예산안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다.

<표 2-409> 회기운영상황

(단위 : 일)

구 분	회 의 횟 수	총 개회일수	회의가 없었던 일수
계	8	115	65
정례회	2	52	17
임시회	6	63	48

이와 관련하여 의원출석률을 살펴보면, 전체 회기출석률은 85.6%를 기록하였으며, 본회의 출석률은 이보다 낮은 84.6%를 나타냈다.

<표 2-410> 회의별 의원출석률

구 분	회의회수	총 개회일수	평균 회의일수	의원출석률 (%)
계	8	115	14	85.6 (84.6)
정례회	2	52	26	85.6 (83.2)
임시회	6	63	11	85.5 (86.0)

주) 괄호내는 본회의 출석률 표시임.

다. 의안의 처리 실적

지난 1년 동안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148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조례안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및 결산안이 10건, 건의 및 결의사항이 31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안건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이 127건, 수정가결이 18건, 철회 2건, 미처리 1건으로 나타났다.

<표 2-411> 의안처리내역

(단위 : 건)

합 계	조 력			예산및 결 산	건의및 결 의	기 타
	소 계	의 원 발 의	단체장 발 의			
148	96	44	52	10	31	11

<표 2-412> 의안처리결과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기 타	
		원 안	수 정	대 안					
148	147	127	18	-	-	-	2	-	1

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역

2008년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45개 기관 수감결과, 지적사항은 총 210건으로 이중 기획행정위원회가 44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53건, 건설소방위원회 23, 교육사회위원회 21건, 농수산환경위원회 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유형별로 살펴보면 권고를 요하는 사항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요구 11건, 주의 6건, 개선 61건, 건의사항이 8건으로 나타났다.

<표 2-413>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수 감 기 관 수						
계	본 청	소속기관	하 부 행정기관	사 무 위탁법인	교육기관	기 타
45	16	16	-	-	6	7

<표 2-414> 위원회별 감사지적건수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계	기획행정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교육사회	농수산환경	의회운영
2008년	210	44	53	23	21	69	-

<표 2-415> 위원회별 감사결과 지적내역

(단위 : 건)

구 분 위원회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의 · 기타
계	210	11	6	61	124	8
기획행정	44	1	2	15	25	1
경제관광문화	53	2	-	11	36	4
건설소방	23	-	1	1	21	-
교육사회	21	7	-	6	8	-
농수산환경	69	1	3	28	34	3
의회운영	-	-	-	-	-	-

마. 도정에 대한 질문과 처리실태

지난 1년 동안 도정질문은 2차례 있었는데 질문의원은 13명으로 전체의원의 27%에 달했다. 질문한 총 건수는 70건이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기획행정분야가 11건, 경제관광문화분야가 13건, 건설소방분야가 14건, 교육사회분야가 10건, 농수산환경분야가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집행부 약속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의회 도정질문·답변시 약속사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상·하반기에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8대 도의회 개원이후 2008. 12. 31일까지 관리하는 약속사항 관리건수는 75건으로 22건은 완료되었고, 53건은 추진 중에 있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2-416> 도의회 질문내용 분석

(단위 : 건)

구 분	계	기획행정	경 제 관광문화	건설소방	교육사회	농 수 산 환경
2008년	70	11	13	14	10	22

<표 2-417> 실국별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현황(제8대 도의회)

(단위 : 건)

구분	계	기획 조정실	투자 정책국	경제 과학국	행정 지원국	관광 문화국	복지 여성국	농림 식품국	해수 환경국	양산 환경국	건설 방재국	소방 본부	농업 기술원	F1대회 준비 기획단
약속 건수	75	12	2	6	9	8	6	11	5	11	1	2	2	
완료	22	3	2	4	3	3	2	1	1	3	1	-	1	
추진중	53	9	-	2	6	5	4	10	4	8	-	2	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의회협력담당 양송식, 담당자 강종철, 심영희

5-3. 2008년도 「균형성과관리(BSC) 운영·평가」 실시

가. 「균형성과관리(BSC) 운영」 도입

(1) 균형성과관리(BSC) 도입 배경

조직의 미션, 비전을 부서단위 목표와 연계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행정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도정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진사업의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 중심 성과관리제」와 「자체평가」를 '08년에 균형성과관리(BSC)로 대체하였다.

(2) 균형성과관리(BSC) 추진 경과

'08. 3. 4 성과관리 지표개발을 위하여 컨설팅 용역을 (주)퍼포먼스 웨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관리 이해, 마인드변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과관리 교육을 실국장 이상 간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이상 실시하였다.

또한 조직 및 부서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지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과장, 담당급 사무관을 대상을 워크숍을 실시하고, 실국, 실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9월까지 7회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3) 우리 도의 미션 및 비전과 CSF, KPI 현황

우리도의 미션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전남」으로 의미는 지역구촌 모든 사람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살기를 희망하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지고 경제적으로 충만한 상황에서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며 만족을 느끼는 지역을 뜻하며, 비전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으로 정하고 관점별 핵심성공요인 및 성과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도 차 원		국 차 원		과 차 원	
	CSF	KPI	CSF	KPI	CSF	KPI	CSF	KPI
계	716	1,246	30	47	131	187	555	1,010
고객	90	90	1	1	15	15	74	74
업무프로세스	356	886	26	43	71	127	259	714
재무	180	180	2	2	30	30	148	148
학습 / 성장	90	90	1	1	15	15	74	74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현황

조직 성과관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한 15개 실국, 74 실과를 포함한 89개 부서이며 이중 조직 성과평가는 도립대학(실국), 소방본부(실과), 도의회사무처(실과)를 제외한 14실국, 64개 실과로 총 78개 부서를 평가하였다.

개인 성과평가는 전임계약직, 장기교육자, 파견근무자, 공로연수자, 공석, 별도 평가부서, 평가관련부서 근무자 등을 제외한 5급이상 302명(실국장14, 실과장64, 담당224)을 평가하였다.

(5) 부서별 최종평가 결과(상위 5개부서)

구분	평균	실국 단위	실과 단위	비 고
최 종 평 가 (100)	87.7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관광문화국	행복마을과	
		투자정책국	관광정책과	
		해양수산환경국	친환경농업과	
		행정지원국	친환경연구소	

나. 「균형성과관리」 결과 요약

(1) 운영성과

'08년에 도입한 균형성과관리(BSC) 제도는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비전 달성을 위해 7대 핵심전략과 19개 전략테마를 설정하여 4대 관점별로 핵심성공요인(CSF) 716개 및 성과지표(KPI) 1,246개를 설정하는 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과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일한 만큼 스스로 평가 받는 체계로 전환하

여 도정역점 시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좋은지표 개발이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에도 영향 끼침이 입증돼 전략 조직 구축을 위한 BSC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공통지표를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행태개선 기능, 공무원 업무역량개발 및 예산확보와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다.

(2) 개선할 사항

지표달성을 평가에서 나타난 목표대비 달성을 100% 초과 지표는 09년 지표고도화 작업 시 '08년도 실적을 기준점으로 목표상향하고 BSC제도 도입 초기로 인한 이해부족과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과 행정의 특성상 목표의 계량화 곤란으로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지표개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지나친 평가결과 의식하여 난이도가 낮은 과소목표 설정하였고, 행사개최 건수, 홍보활동 건수, 행사참석인원 등 단순 산술적이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지표 운영을 하였다.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의 성과관리 보다는 최종 목표치 달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점 등을 개선할 사항이라 하겠다.

(3) 향후 계획

균형성과관리(BSC) 정착 시행에 따른 부서 지표고도화 워크숍 개최 및 성과관리부서 확대 운영(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미래전략기획단, 도의회사무처)하고 도정현안(주요업무)과 연계한 지표개발 및 성과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성과중심 정책평가 시책의 세부 실행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09년도 균형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지표성격평가를 강화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및 Best지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정책평가담당 배유례, 담당자 박윤수

5-4. 통계관리의 정확성 도모

가.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12월 31일 24:00를 기준으로 각 시·군, 읍·면·동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 및 세대현황을 전산 출력하여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인구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행정구역, 성·연령별 내국인과 세대수 등이며 외국인 세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는 책자로 발간·배포되어 국가의 인구정책, 행정구역 조정,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08년말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418> 인구 및 세대(2008년말)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시 부	군 부
계	세 대	773,087	388,761	384,326
	인 구	1,938,690	1,052,478	886,212
	성 별	남	968,888	530,173
		여	969,802	522,305
내국인	세 대	773,087	388,761	384,326
	인 구	1,919,000	1,044,485	874,515
	성 별	남	958,491	526,007
		여	960,509	518,478
외국인	인 구	19,690	7,993	11,697
	성 별	남	10,397	4,166
		여	9,293	3,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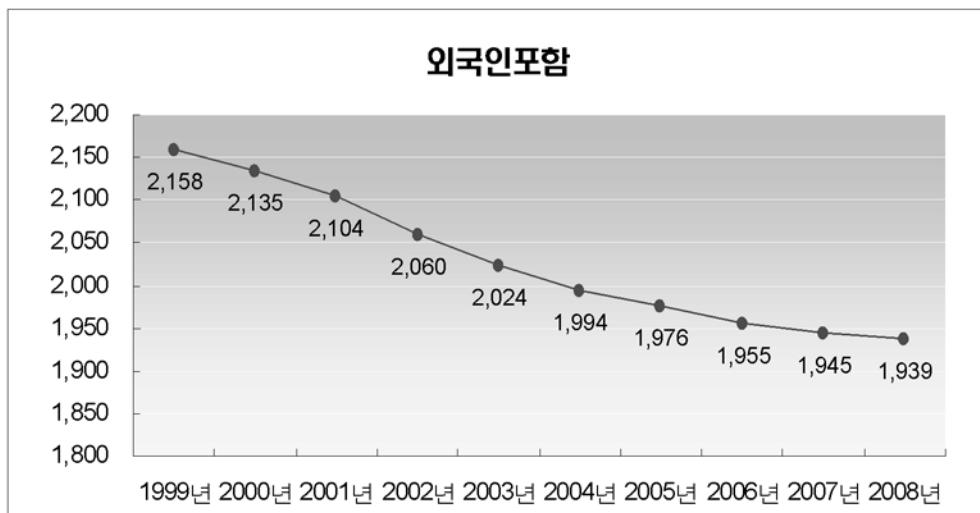
2008년 말 현재 도내에는 773,087세대(전국 대비 4.1%)에 1,938,690명(전국 대비 3.8%)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1,919,000명(99.0%), 외국인은 19,690(1.0%)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968,888명(50%)이고 여자는 969,802명(50%)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914명이 많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7,358세대(1.0%)가 증가한 반면 인구는 6,272명($\triangle 0.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는 2,202명($\triangle 0.2\%$), 여자는 4,070명($\triangle 0.4\%$)이 감소하였다.

시부와 군부의 세대 및 인구를 비교해 보면 시부는 388,761세대(50.3%), 1,052,478명(54.3%)이고, 군부는 384,326세대(49.7%), 886,212명(45.7%)으로 2007년에 비해 시부는 6,621세대(1.7%)가 증가, 인구는 2,295명이(0.2%) 증가했고, 군부는 737세대(0.2%)가 증가하였으나 인구는 8,567명($\triangle 1.0\%$)이 감소하여 시부는 핵가족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부는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19> 연도별 인구 변동추이

(단위 : 천명)





나. 주요 통계조사

(1) 광업 · 제조업통계조사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는 1967년 기준 조사를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1969년 기준 조사부터 통계청(1990. 12 이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인수한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실시한 2007년 기준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는 제33회 조사이다

한편 광업 · 제조업부문은 물론 전기 · 가스 · 수도업을 포함하는 「산업총조사」는 1955년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래 2~3년 주기로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여 오다가 1973년부터 통계청에서 인수하여 5년 주기(끝자리가 3, 8 字 기준년도)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이거나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2007년중 최소한 월 1주일 이상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08. 6. 91~7. 4(26일간)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도내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실태 등을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의 각종 연구활동 및 산업구조통계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산업생산지수 개편,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7년 기준 조사결과를 2006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420>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단위 : 개, 명, 십억원, %)

구 분	2006년 기준	2007년 기준	증 감 율	전국 비중
사 업 체 수	2,657	2,771	4.3	2.3
월 평균 종사자 수	72,052	76,027	5.5	2.6
급여액	2,193	2,560	16.7	3.2
출하액	60,698	70,462	16.1	7.1
부가가치	14,887	18,383	23.5	5.3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	17,808	20,299	14.0	6.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통계분석담당 유상섭, 담당자 정금숙

(2) 사업체조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민간업체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별 분포 및 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으로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조사하였다. 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간이 판매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122,965개로써 전국 3,189,181개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514,078명으로 전국 15,728,028명의 3.3%에 해당된다. 2006년에 비해 사업체는 300개(0.2%)증가하였으며, 종사자는 10,144명(2.0%)이 증가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421>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07년말)

구 分	사 업 체 수(개)			종 사 자 수(명)		
	전 남	전 국	구성비 (%)	전 남	전 국	구성비 (%)
계	122,965	3,189,181	3.9	514,078	15,728,028	3.3
A. 농업·임업 및 어업	293	2,264	12.9	4,785	34,041	14.1
B. 광업	981	1,786	54.9	3,664	17,920	20.4
C. 제조업	10,236	331,150	3.1	88,672	3,380,090	2.6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93	1,562	12.4	4,324	68,831	6.3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274	4,928	5.6	3,296	61,754	5.3
F. 건설업	3,883	92,531	4.2	33,555	847,713	4.0
G. 도매 및 소매업	36,124	850,195	4.2	81,482	2,479,686	3.3
H. 운수업	8,765	337,947	2.6	26,966	879,062	3.1
I. 숙박 및 음식점업	25,259	595,852	4.2	58,428	1,647,679	3.5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72	24,057	2.8	6,787	415,301	1.6
K. 금융 및 보험업	1,571	36,727	4.3	20,407	636,593	3.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94	119,070	1.6	7,131	417,286	1.7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68	61,456	2.4	7,445	512,664	1.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96	29,598	2.7	9,868	621,433	1.6
O.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28	12,269	10.0	34,471	555,909	6.2
P. 교육 서비스업	6,283	157,094	4.0	50,627	1,325,985	3.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08	81,013	3.8	30,995	754,033	4.1
R.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42	96,335	3.5	9,537	294,908	3.2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595	353,347	4.7	31,638	777,140	4.1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연말기준 집계자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통계분석담당 유상섭, 담당자 김성진

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

(1) 전남통계연보

통계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보존, 각종 기본계획수립 및 각급 기관·단체 등의 계획수립 등 급증하는 통계 수요에 폭넓게 대처하기 위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08년에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2007년 도정추진 결과 20개 분야 340개 항목을 시·도간 자료비교가 쉽도록 전국 표준화방식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수록한 책자 700부를 발간하여 행정·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통계분석담당 유상섭, 담당자 김선미

(2) 시·도 비교통계

이 비교통계는 중앙 각 부처와 시·도 등 전국의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편집하여 항목별로 전국 16개 시·도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순수 가공통계로서 조사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매우 경제적인 통계이다.

2007년말 현재 기준 12개분야 136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전국단위로 비교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보다 편리하게 정책 수립 및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통계분석담당 유상섭, 담당자 김성진

(3) 주요 도정통계 수첩

도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를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7년말 기준으로 기본현황 등 10개 분야 160개 항목의 주요 통계를 수록한 휴대용 수첩 1,500부를 발간, 도 및 시·군 간부 등

에게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통계분석담당 유상섭, 담당자 정금숙

5-5. 국제교류 활동강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친선 우호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86년 미국 미주리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도는 세계 각국의 주/현/성과 지속적인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2008년도까지 28개 자치단체(자매결연 3, 행정 협정 25)를 대상으로 친선 교류에서 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상호 공동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교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제화 물결에 따라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 NEAR(동북아자치단체연합, 1996년 9월 가입), UCLG(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 2006년 2월 가입)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2010년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2012년 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동북 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남의 투자여건과 관광자원 소개 등 도정 알리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지방정부 수장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인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활성화에 의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3개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전남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전남의 변화하는 발전상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한·중·일 지방 정부간 교류에 있어 전남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었다.

<표 2-422>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협정 현황

○ 자매결연

구 분	자 치 단 체 명	체결일자
자매결연 (3)	미국 미주리주	1986. 9. 24
	미국 오리건주	1996. 10. 16
	중국 저장성(浙江省)	1998. 5. 16

○ 우호협정

구 분	자 치 단 체 명	체결일자
우호협정 (25)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1992. 8. 25
	사가현(佐賀縣)	1992. 8. 25
	나가사키현(長崎縣)	1992. 8. 25
	야마구치현(山口縣)	1998. 9. 2
	고치현(高知縣)	2003. 5. 30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1996. 4. 19
	장쑤성(江蘇省)	1996. 4. 23
	산동성(山東省)	1996. 4. 25
	후난성(湖南省)	1997. 6. 21
	장시성(江西省)	2004. 4. 23
	쓰촨성(四川省)	2004. 4. 26
	푸젠성(福建省)	2007. 10. 11
	산시성(山西省)	2007. 11. 12
	충칭시(重慶市)	2008. 9. 3
	독일 브레멘주	1996. 10. 28
	독일 슬레스비히 홀스탈인주	2004. 11. 30
	체코공화국 모라비아-실레시아주	2001. 12. 4
	필리핀 리잘주	1997. 5. 7
	말레이시아 케다주	1997. 5. 10
	베트남 바리아봉타우省	1997. 5. 12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2001. 4. 26
	태국 라용도	1999. 8. 27
	콜롬비아 보야카주	2001. 5. 11
	러시아 노보시비尔斯크주	2005. 9. 28
	키르기즈스탄 추이주	2007. 11. 19

가. 미국지역과의 교류

'86년 9월 24일 미주리주, '96년 10월 16일 오리건주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미국과의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대학과 민가분야의 교류로까지 발전시키게 되었다.

특히, '07년부터 여름방학 동안 도내 초중생을 위해 개설된 영어 캠프에서는 '07년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주립대 졸업생 35명이 원어민 강사로 81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08년에는 미주리주립대 졸업생 34명과 포틀랜드주립대 졸업생 21명이 대불대 등 도내 권역 별로 설치된 4개 캠프에서 1,272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박준영지사는 미국 투자유치 순방시 영어 체험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캠프의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 원어민 강사의 확보를 위해 미주리주립대를 직접 방문해 영어교육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캠프에 참가할 자원봉사자와 도내 농어촌 학교에 장기 근무할 원어민 강사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다.

또한 도내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화체험을 통한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2001년 시작된 LA호남향우회의 도내 모범학생 해외 초청행사는 2005년 멕시코향우회, 2006년 독일향우회로까지 확대되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0명의 도내 소년소녀가장과 모범학생들에게 선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국제교류담당 장영식, 담당자 이은영

나. 중국지역과의 교류

전라남도는 1993년 저장성(浙江省)과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시작으

로,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을 비롯하여 2008년 9월 충칭시(重慶市)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10개 지역으로 교류대상을 확대하였고, 다방면에 걸친 전라남도의 대중국교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향후 공동교류 협력 체계의 틀을 다져가고 있다.

전라남도는 우호교류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한층 더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호교류지역을 대상으로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 교류사업 및 경제,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농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도는 전라남도와 저장성 자매결연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청소년 교류, 한·중 포럼, 공무원 상호파견 등 10년 동안 실시해 오던 기존 사업들과 동시에, 10월에 개최된 제89회 전국체전과 명량대첩축제 등에 저장성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중국 전통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켰다.

또한 양 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제10회 한·중 포럼 기간동안 저장성 중소기업국 관계관 및 기업인들을 초청, 상담회를 실시하고 전라남도의 주요 프로젝트 설명과 현지시찰 등을 통해 전라남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돋고 향후 양 지역간 경제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서 개최된 국제 친선 축구대회에 우리 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타 국가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치르고 양 지역간 스포츠교류 촉진에도 기여하였다.

전라남도와 산시성(山西省)의 마그네슘 교류를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내륙에 위치한 우호교류지역들의 외사부서와 관광국 관계관들을 초청하여 팸

투어를 실시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해양관광 상품 홍보 및 관광교류를 촉진시켰다.

2008년 5월 쓰촨성(四川省)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구호금을 전달하는 한편, 쓰촨성 정부 공무원 우리 도 파견연수를 실시하고, 후난성(湖南省) 외사관계관 및 장시성(江西省) 정부의 고위급 인사 방문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 역동성을 널리 홍보하고 중국 내륙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2008년도 9월초 산둥성(山東省)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회의에 전라남도 부지사를 단장으로 참석하여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으며,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충칭시(重慶市)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 지원을 비롯한 경제,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추진을 협의하였다.

2008년도는 중국 우호교류지역들과의 우의증진, 유대강화를 통하여 향후 교류영역 확대 및 실질적인 교류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해가 되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국제교류담당 장영식, 담당자 이애란

다. 일본지역과의 교류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원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92년 태동한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지사 회의는 그동안 17회의 회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다

자간 국제교류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사회를 통하여 경제, 관광, 청소년 교류 등 공동 교류사업 및 사가현과의 직원 상호교류 사업 등 10개 분야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정보교환, 기술교류, 상호 문화이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실적으로는 청소년 교류사업, 관광 교류사업 등이 양국간에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주민친선 이벤트사업은 서로의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교감의 장을 이루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경제 교류촉진사업 등 9개의 공동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측이 공동으로 일본정부에 한국인 무비자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한국인 비자면제 조치를 얻어내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2012박람회 유치를 위해, 일본지역 4개현의 지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수엑스포의 유치성공에 커다란 힘을 보탰다.

제1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는 2008. 10. 22~10. 24까지 사흘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그리고 일본측에서 아소 와타루 후쿠오카현 지사, 후루카와 야스시 사가현 지사, 가네코 겐지로 나가사키현 지사, 니시무라 와타루 야마구치현 지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제17회 회의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가 한일 양국의 실물경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제안으로 한일해협연안 8개시도현 지사의 공

동명의로, 한일 양국정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수축산물에 관한 한일 공동인증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제안에 8개 시도현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의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한일 양국에서 개최된 만화페스티벌에 이어, 2009년에는 사가현에서 한일해협권 영화제를 개최하여, 한일해협 8개시도현과 관련 있는 영화의 상영, 단편영화 등의 공모경쟁, 젊은이 영상 캠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양 지역 어린이들이 자연환경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해 즐겁게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도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제3회 아시아 아마추어 바둑 선수권 대회」에도 8개 시도현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제18회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2009. 10. 28부터 10. 30까지 3일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도현 지사회의 개최지 현황

- | | | |
|---------------|--------------|-----------------|
| · 제주도(1992) | · 사가현(1993) | · 부산시(1994) |
| · 나가사키현(1995) | · 경상남도(1996) | · 후쿠오카현(1997) |
| · 전라남도(1998) | · 사가현(1999) | · 제주도(2000) |
| · 아마구치현(2001) | · 부산시(2002) | · 나가사키현(2003) |
| · 경상남도(2004) | · 후쿠오카(2005) | · 전라남도(2006) |
| · 사가현(2007) | · 제주도(2008) | · 아마구치현(2009예정)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복남,
국제교류담당 장영식, 담당자 박순임

6.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6-1. 지방예산의 건전성 제고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가. 재정규모 및 재원배분

(1) 재정규모

우리 도(도+시·군)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최대한의 중앙지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적극 노력하였다. 2008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6.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 본청의 증가율은 12.7%이다. 일반회계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8.0% 증액된 11조 7,284억원이며, 이 중 도 본청은 14.2%가 증액된 4조739억원이며 시·군은 20.2%가 증액된 7조6,545억원이다. 특별회계는 1조9,45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9.8%가 증가되었다. 재정자립도는 2007년 24.1%(도·본청 14.5%, 시·군 21.1%)에서 2008년 21.4%(도·본청 11.0%, 시·군 16.5%)로 2.7%가 증가되었다.

<표 2-423>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합 계	계	103,457	117,084	112,822	136,741
	일반회계	86,731	99,369	96,074	117,284
	특별회계	16,726	17,715	16,748	19,457
도	계	39,368	43,385	42,331	48,912
	일반회계	31,978	35,679	34,651	40,739
	특별회계	7,390	7,706	7,680	8,173
시·군	계	64,089	73,699	70,491	87,829
	일반회계	54,753	63,690	61,423	76,545
	특별회계	9,336	10,009	9,068	11,284

(2) 재원의 배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2008년 최종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290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8,67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39억원, 문화 및 관광에 3,362억원, 환경보호에 3,504억원, 보건에 432억원, 산업·중소기업에 1,439억원, 수송 및 교통 3,4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97억원, 기타분야에 2,219억원으로 나타났다.

1)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

총력 기업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진흥에 필수적 요건으로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 등 건설을 통해 도내 어디에서나 1시간 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망 완비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 투자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였다.

2) 친환경 생명산업의 확대와 농어촌 공동체 복원

농업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과 비교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고 농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가공·유통부문을 개선하였으며, 전국최초의 행복마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과 전통 테마마을 조성, 면단위 복지시설 확충하는 등 미래형 농어촌 개발은 물론 지역공동체 복원에 역점을 두었다.

3)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형 기업을 중심으로 BT, NT, ST, MT 등 유망산업 분야의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각종산업화 연구센터와 지역대학의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임대산단 공급, 물류인프라 확충 등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과 산업의 U-턴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어려운 계층의 생산적 복지서비스 강화 등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타운과 전문요양병원 건립, 웰빙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전남여성플라자를 건립하여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5) 섬과 해안선 개발, 내륙과 해양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주역으로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섬 관광자원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남해안 일주도로와 연륙·연도교 건설 등 접근도 제고와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해양테마 펜션단지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숙박 인프라 구축,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지리산권 등 특정지역 관광개발 추진에 내실을 기울이는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예산총괄담당 양재승, 담당자 김승현

(3) 지방채무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

우리 도의 2008년말 지방채 규모는 7,228억원 [도 1,508억원(20.8%), 시·군 5,720억원(79.2%)]으로 전국 지방채 19조 486억원의 3.8%를 차지함으로써 16개시도 중 네번째로 적게 나타났으며, 도 본청의 경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재정운영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 본청의 채무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와 여성 플라자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기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4> 연도별 지방채 증가현황(순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7,672	6,013	6,506	6,493	7,228
도 본 청	1,206	491	657	682	1,508
시 군	6,466	5,552	5,849	5,811	5,720
전 국	169,468	174,318	174,351	182,076	19,0486

(4) 앞으로 추진계획

부족한 재원의 확충과 지방예산의 건전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취약한 재정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함께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으로 발생된 여유 자금으로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우리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예산총괄담당 양재승, 담당자 이길환

나. 지방재정의 확충노력

(1) 우리 도의 재정여건

우리 도는 산업구조가 농어업 위주의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세원이 빈약하고 재정자립기반이 극히 취약해 재정자립도가 매년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나, 낙후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2-425> 재정자립도 현황

구 분	2008 당초 예산			2009 당초 예산		
	평 균	최 고	최 저	평 균	최 고	최 저
전 국	53.9%	88.3(서울)	21.4(전남)	52.6%	92.0(서울)	19.4(전남)
도본청	34.8%	66.1(경기)	11.0(전남)	33.3%	64.1(경기)	10.4(전남)

또한 빈약한 세원여건은 결과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5개나 되어 2009년 당초 예산기준 전국 인건비 미해결 114개 시·군·구중 13.2%를 점유하여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체세원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26> 지방세 및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2009 당초)

지방세 대비	자체수입 대비
시(1) : 나주 군(14) :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군(4) : 구례, 보성, 강진, 완도

<표 2-427> 지방자치단체별 인건비 미해결 현황 (2009 당초)

시·도별	자 치 단 체 현 황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계	본 청	시	군	자치구	자체수입대비	지방세 대비
합 계	250	16	77	88	69	11	114
서 울	26	1	-	-	25		8
부 산	17	1	-	1	15	2	14
대 구	9	1	-	1	7	1	5
인 천	11	1	-	2	8		5
광 주	6	1	-	-	5	1	5
대 전	6	1	-	-	5		3
울 산	6	1	-	1	4		2
경 기	32	1	27	4	-		
강 원	19	1	7	11	-		11
충 북	13	1	3	9	-		6
충 남	17	1	7	9	-		5
전 북	15	1	6	8	-	2	10
전 남	23	1	5	17	-	4	15
경 북	24	1	10	13	-	1	16
경 남	21	1	10	10	-		9
제 주	1	1	-	-	-		

6-2.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선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1) 목적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지방분권개혁로드맵’과 함께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2005년부터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2) 운영방안

균특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다수의 특별회계 재원을 균특회계로 전환하여 2009년도는 4.2조원의 규모로 운영된다.

균특회계의 세출은 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 및 이월 허용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금법상 사후 정산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시스템 도입과 수도권보다 낙후된 “지방”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것을 기본운영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사전에 시도별로 예산신청한도를 설정하여 시도별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지역혁신 사업계정은 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예산신청시 자발적 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균특회계의 대상사업이 지역개발사업계정 211개, 지역혁신사업 계정 43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대상사업이 기존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는 점으로 보아 대상사업 조정시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대상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규전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과거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시에는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하면 되었으나 균특회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해당중앙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자체를 어렵

게 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균특회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낙후지역의 발전시키는 지역사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획능력 배양과 함께 국가정책의 균형발전의 견실한 의지가 더욱 강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국고담당 김금용, 담당자 최은주

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1) 지방교부세 개요

1983년 지방교부세 법정률 부활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던 법정률 13.27%는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주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15%로 인상되어 운영되다가, 2005년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9.13%로 인상되어 운영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교육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19.24%로 인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 중 0.94%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운영되며 18.3%는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 규모는 이전의 19.13%와 비교하여 상승한 수준이나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등 추가부담이 늘어나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확충 효과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제도의 근본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되는 최소한의 전국적인 기본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일정률인 19.24%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으로 총액 보장하고 있으나, 2000년의 조정률 92.5%를 제외하고는 2008년까지 조정률은 90%이하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는 지자체 최소한의 행정 수준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최소한의 기본재정수요(national minimum)의 확보면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가 기준재정수요를 적어도 90%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충족률을 90%이상까지 보장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90%미만이 일정년도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총액보장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비율의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 완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조정률을 적용하고,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조정률을 적용하는 차등조정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성격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고보조금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경비를 지원하는 경상지출의 성격의 지방교부세는 각각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렇듯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단순한 재원이전이 아니라 국민 최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인 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계 중앙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국고담당 김금용, 담당자 김금희

6-3. 국고지원현안사업비 확보

가. 우리 도의 현실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유치가 이루 어져야 하나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시설이 취약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중 가장 열악하여 자체 재원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SOC시설을 확충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나. 2009년도 국고지원현안사업비 확보활동상황

상기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초부터 다각적인 확

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월에는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13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3월에는 2009 국고지원요청 건의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16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역출신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확보 대응방안 책자를 제작, 전 공직자에게 배부하여 국회나 중앙 각 부처관계관 설득시 활용도록 하였다.

또한 5월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민주당과 정책간담회,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11월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차원에서 우리도의 현안사업비 확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180회에 걸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예산확보활동과 국회 예결위 각 당 간사 및 계수조정소위 방문건의 등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까지 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동의 노력으로 총력을 전개한 결과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9년 우리도의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비가 사상 최대규모인 5조 8,912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는 2008년 예산확보액 대비 6,620억원(12.7%)이 증가한 금액이다.

<표 2-428> 연도별 국고현안사업비 확보액

(단위 : 억원)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확보액	26,618	28,339	30,209	34,090	37,023	39,481	43,415	48,397	52,292	58,91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국고담당 김금용, 담당자 김현춘

6-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정착

가. 투·융자심사제도 개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신규 투자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나.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의 내실화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내실 있는 투·융자심사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6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지침을 마련하여 도 본청 실과 및 사업소와 시군에 시달하였다.

본 지침의 내용에는 지방재정폐널티제 시행, 민자사업 투자자의 능력판단, 조건부 제외사업의 신설,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만든 지침으로 2006년도 공연,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심사금액 확대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제외사업의 일부확대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2007년도 심사에서는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여부, 사업관련 도 담당부서의 의견, 정부 종합계획 및 도 계획의 반영여부 등을 사전에 서면심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심사도 병행하였다.

또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사업설명 기회 부여 및 의

견청취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 2-429> 연도별 투·융자심사건수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 수	80	116	157	180	164	187	133

연도별 투·융자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경기 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심사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3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사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도부터는 심사규모가 1조 7천억원을 넘어서 한정된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융자 심사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187건(3조 7,845억원)을 심사하였다. 그중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은 162건(1조 3,853억원)으로 도에서 심사하였고, 200억원 이상 사업은 25건(2조 3,992억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다.

2008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규칙 개정으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도심사, 3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심의건수가 중앙심사 19건, 도심사 114건으로 다소 하향되었다.

2008년도 투·융자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심사결과 중복투자 및 사업 준비 미비로 재검토 판정을 받은 6개 사업(2,064억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적정성, 재원조달 대책 등을 보완토록 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30> 200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단위, 건, 억원)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고
		소 계	도	중 앙	소 계	도	중 앙	
계	건 수	133	50	41	9	83	73	10
	금 액	61,713	45,264	3,531	41,733	16,449	7,262	9,187
적 정	건 수	58	19	17	2	39	37	2
	금 액	5,253	1,693	1,263	430	3,560	2,900	660
조 건 부	건 수	69	28	22	6	41	35	6
	금 액	54,396	42,911	2,058	40,853	11,485	4,278	7,207
재 검 토	건 수	6	3	2	1	3	1	2
	금 액	2,064	660	210	450	1,404	84	1,320
심사제외	건 수	-	-	-	-	-	-	-
	금 액	-	-	-	-	-	-	-

앞으로도 투·융자심사제도가 건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 편성전에 투자심사분석을 확행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각종 지방계획과 재정지원에 심사결과가 연계되어 반영되도록 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운영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투·융자심사담당 노래영, 담당자 이유옥

6-5. 지역개발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가. 기금조성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이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자금은 상·하수도, 도로,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융자 및 예금이자수입, 도비출연 등 총 17,713억원이며 이중 채권발행에 의한 수입이 13,557억원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3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채권매출	이자수입 등	도비출연 등
조성액	17,713	13,557	4,102	54
비중(%)	100	76.5	23.2	0.3

이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등을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법인 포함)와 건설도급 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되며 매출된 채권은 연리 2.5% 복리의 이율로 5년 후에 일시 상환한다. 2008년도 채권 매출액은 1,234억원으로, 자동차 등록분야 486억원(39.4%), 각종허가 49억원(4.0%), 각종계약체결 699억원(56.6%)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나. 지역개발기금 활용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의 한계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증가에 따른 투자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1조 4,992억원 을 시·군 등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그동안의 지역개발기금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사업 2,852 억원, 농어촌대책사업 319억원,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4,882억원, 기타사업에 6,939억원을 융자하였고, 2008년도에는 상·하수도 사업 105억원, 농어촌대책사업 63억원, 도로사업에 200억원, 기타사업에 682억원으로 총 1,05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표 2-432> 분야별 융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상수도	하수도	농어촌 대 책	토지 및 주택개발	의료원	도로	기타사업
융자금액	14,992	2,567	285	319	4,882	304	1,006	5,629

다. 앞으로 추진계획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들의 부담으로 조성하여 도와 시군,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서 그 이익을 다시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의 투자효과 및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 서비스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투융자심사담당 노래영, 담당자 박영임

6-6. 재정사업의 모니터링과 예산편성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 '08

가. 추진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05년부터 미국 PART¹⁾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도는 '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시범 추진으로 실·국의 자율적 예산운용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 환류 강화가 필요하였다.

나. 추진개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우리도에서 2007년도 모든 부서의 예산사업에 대한 '08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예산편성 및 사업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세출구조 조정과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의거 실시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예산담당관실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전 제시된 사업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침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 실시하여 실국 이의제기를 반영 후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정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13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1개 추가항목으로 구성되고 계획단계 35점, 집행단계 30점, 성과단계 35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추진되며, 항목별 평가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우수, 다소우수, 보통, 미흡으로 4단계로 등급화 된다.

1) 각 부처가 매년 소관사업의 20%씩 자체평가하고 미 예산처(OMB)가 평가결과를 점검하여 예산편성에 활용

<표 2-433> 2008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국별 대상사업 현황

(단위 : 건)

총 계	공보관	경제 과학	관광 문화	복지 여성	농림 식품	해양수산 환경	건설 방재	농업 기술	소방 본부
32	1	3	6	5	5	4	6	1	1

다. 추진결과

실국에서 '07년도에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9개 실국, 32개 사업이 100점 만점에 평균 71.4 점으로 「다소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는 사업계획 21점, 성과계획 14점, 집행 30점, 성과 35점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90점 이상은 「우수」, 89~70점은 「다소우수」, 69점~50점은 「보통」, 50점 미만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농업박람회를 통한 농업의 중요성과 새로운 농업기술·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창출에서 좋은 성과를 거 얘한 농업기술원의 제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계획, 집행, 성과에서 모두 점수를 인정받아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그 다음은 공보관실 전남 도정 홍보 광고로 87.5점을 받았다.

반면에 건설방재분야는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제고 실적과 성과분야의 사업평가 미실시, 제도개선반영 실적이 미비하여 6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계절 물 걱정 없는 하천만들기 사업 등 15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09년 예산편성시 10%감액(1,140백만원) 조치하였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08년도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확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 자체사업 중 평가실익이 있는 도비 3억원 이상 지원사업을 실국별, 사업규모별 기준에 따라 32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토, 도비의 적소투입과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대상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비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의 관심도와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사업평가 항목을 계량화·간소화하고 검토 분석단계에서 사업장의 현지점검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분석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을 도모하여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10%이내 증액하고 미흡사업은 10%이내 감액, 사업목표가 불확실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10년도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제공 및 세출예산 편성 구조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투융자심사담당 노래영, 담당자 방창성

6-7.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가. 기금현황

우리 도에서 관리중인 기금은 1963년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된 이후 현재 15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총 2,425억 원에 달한다.

<표 2-434> 각종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조성액 (2009년)	용도	소관부서
계			242,505		
투자유치	2003	도조례	2,841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분양 및 토지구입	투자기획과
문화진흥	1981	"	10,739	문화활동, 전통문화연구개발·보존지원	문화예술과
국악단육성	1989	"	1,203	국악, 작품연구개발, 국악인구 저변확대	"
체육진흥	1995	"	8,080	우수선수·지도자양성, 지방체육진흥 등	스포츠산업과
사회복지	2002	"	38,544	재해구호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보호 육성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식품진흥	1989	식 품 위생법	10,507	식품위생 및 도민보건향상	사회복지과
여성발전	1997	도조례	4,220	여권신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여성가족과
녹색축산	2008	도조례	0	녹색성장 동력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등	축정과
중소기업 육 성	1982	"	107,082	중소기업 경영안정, 시설 확충, 창업지원	경제통상과
재 난 · 관리기금	1996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14,676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지원	방재과
농업인학습 단체육성	1997	도조례	1,729	농업인단체 및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농업기술원
환경보전	1999	"	1,125	환경보전, 교육, 홍보, 환경단체 지원	환경정책과
남북교류	2003	"	526	남북간 문화·학술등 교류협력사업 증진	행정과
친환경 농업육성	2006	"	20,180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한옥발전	2006	"	21,053	한옥의 보존·보급의 활성화	행복마을과

나. 기금의 관리 · 운용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은 일반세입 세출예산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금별로 독립된 회계관직을 두되 소관 실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실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준한 회계장부와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적립중인 기금이나 여유자금관리에 있어서는 그 동안 고금리 위주로 모든 금융기관에 선택적으로 예치하던 관행을 버리고 금융사고 예방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금고·은행으로 일원화하여 자금의 안전성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다. 기금관리체계의 정립

(1) 기금운용계획수립

2006. 1. 1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다음 연도 총괄기금운영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영계획서는 기금별로 운용총칙과 수입·지출계획, 자금조성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도의회 정기회시 소관상임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한 후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서 최종 확정된다.

<표 2-435>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2) 유사기금의 통·폐합

도 관리 기금은 1963년 재해구호기금이 최초로 설치된 이래 2001. 12월에 17종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기금수가 증가됨에 따라

기금자금 운용관리에 일부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되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2000년에는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01. 9월 이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 2002년부터 단계별로 관련 조례정비 및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해구호 + 기초생활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기금
- 1지역1명품 육성기금 ⇒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회계와 통합
- 공무원교육시상기금 ⇒ 일반회계 편입
- 재난관리 + 재해대책 ⇒ 재난·재해관리기금
- 인재육성기금 ⇒ 폐지

<표 2-436> 연도별 기금증감 현황(2000년~2009년)

(단위 : 억원)

연도별	기금수	기 금 명	조성액
2000	17	· 생활보호기금 폐지 ·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신설	4,466
2001	17	· 변동없음	3,012
2002	12	· 폐지 : 재해구호, 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1지역 1명품, 공무원교육시상, 재난관리, 재해대책 · 신설 : 사회복지, 재난재해, 투자유치진흥기금	3,393
2003	13	· 신설 : 남북교류	3,442
2004	13	· 기금 명칭변경(재난·재해관리 ⇒ 재난관리)	2,642
2005	13	· 변동없음	3,805
2006	15	· 신설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한옥발전기금	3,912
2007	15	· 변동없음	2,531
2008	15	· 변동없음	2,515
2009	15	· 폐지 : 인재육성기금 · 신설 : 녹색축산육성기금	2,42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윤상복,
국고담당 김금용, 담당자 장관호

7. 법무행정의 선진화

7-1.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

가. 자치법규 현황

우리 도의 자치법규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 수립이후부터 1952년 까지의 자료는 일실되어 아쉽게도 초창기의 자료가 없으나 1953. 1. 2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공포된 자치법규는 총 6,109 건으로 조례는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3,256건, 규칙은 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등 2,853건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자치법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치법규에 준하여 제·개정 및 폐지한 훈령은 현재 1,192건, 예규는 1,010건에 이르고 있다.

자치법규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총 362건 (조례 241건, 규칙 121건)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훈령은 121건, 예규는 36건이다.

2008년도 자치법규 운영현황은 조례 84건, 규칙 26건등 총 110건을 정비하였고 참고로 훈령과 예규는 각각 12건과 2건을 정비하였다.

정비내역은 <표 2-437>과 같다.

<표 2-437> 2008년 자치법규 등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 보유	2008 정비 실적				2008 보유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487	124	37	82	5	519
조례	216	84	27	55	2	241
규칙	118	26	4	21	1	121
훈령	118	12	5	5	2	121
예규	35	2	1	1	-	36

나. 자치입법 지원 현황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도민의 행정수요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치입법 내용도 복잡·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입법능력 및 법적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2008년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적법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 자치법규 대본 발간

2004년 대본발간 이후 매년 1회씩 추록을 발간하여 오다가 직제변경 등을 반영하여 대본을 발간·배부(자치법규집 170부, 훈령·예규집 170부)하였다. 이후 매년 반기별로 추록형식으로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라. 자치법규 온라인을 통한 「법령검색서비스」 실시간 제공

2001년 2월 28일부터 전산 온라인망의 지방행정정보은행(ELIS)을 통하여 자치법규 등 각종 도정정보를 일반주민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네티즌들이 자치법규 검색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오범열,
법제담당 정병채, 담당자 나소영, 양미희

7-2. 행정절차제도 운영

가. 행정절차법 개요

행정절차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6. 12. 31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고,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

도 및 시·군에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특히 종전의 행정처분 부서에서 실시했던 청문제도가 법령의 개정으로 2003. 7. 1 이후부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해 오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56회에 걸쳐 180건의 청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 공무원교육원의 주요 교육과정에 “행정절차제도” 교육 과목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절차제도 발전 워크숍에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행정절차제도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오범열,
법제담당 정범채, 담당자 나소영, 김성효

7-3. 행정규제개혁 추진

가. 규제개혁의 추진

1998. 3. 1.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는 '98. 12. 28.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공무원 4명과民間인 각계 전문가 8명을 위촉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는 발족한 이래 14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어 1,079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하고,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필요하거나 결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사무 516건을 발굴하여 이중 정비가 필요한 492건에 대하여는 327건을 폐지하고 165건을 등록 정비하였다.

현재 우리 도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는 64건이며, 그 내용을 도 홈페이지 공개하였다.

2008년도 주요 성과로는 제14차 규제개혁위원회(12. 12)에서 신규 등록규제 등 21건, 전라남도 등록규제 64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 및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함양 교육(6회, 740명)을 실시하였으며, 도 ·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1회, 64명)을 실시하는 등 일선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고취시켰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규제신고란을 개설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기업 · 투자자 ·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의 결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함은 물론,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견의로 잘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이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오범열,
법제담당 정범채, 담당자 김양선

7-4.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로는 변호사 4명, 대학교수 4명, 4급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전직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밑에 간사장과 간사를 두고 있는데

간사장은 법무담당관이, 간사는 송무담당이 맡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심판청구건수 등을 감안하여 개최하는데, 2008년도에는 7회를 개최하였으며 매회의시마다 반드시 4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석토록 하여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리·의결함으로써 청구인(주민)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또한, 심리절차의 객관화를 도모하고자 구술심리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를 병합 토록 하였고 20회에 걸쳐 현장검증 및 확인을 실시하여 심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제도의 운영결과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재결하게 되고 그 재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재결을 하게 되고,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재결을 하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인용 재결을 하는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하게 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이유 없이 재결 내용에 따라야 하며 청구인은 재결 내용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도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건수도 많이 증가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38> 연도별 행정심판청구·재결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행정심판 청구 건수			심리·재결				취하 이송	이월	인용률 (%)
	계	신규 접수	전년도 이월분	계	인용	기각	각하			
2005	366	354	12	72	22	31	19	278	16	30.5
2006	132	116	16	102	38	48	16	11	19	37.3
2007	118	99	19	92	34	45	13	7	19	37
2008	124	105	19	91	28	44	19	15	18	30.7

다. 행정심판 홈페이지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 내 행정심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1. 2. 1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행정심판제도와 청구절차의 안내는 물론 심판 진행상황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및 빈번히 청구되는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예를 수록하여 청구인들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하였던 사례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오범열,
송무담당 심남식, 담당자 강하준, 정혜원

7-5. 소청제도의 효율적 운영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심사를 통한 공무원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과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사건 등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을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밑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는데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서기는 송무담당이 맡고 있다.

소청심사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소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며 결정기간이 짧은 점이 장점이다.

위원회의 심사·결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재적위원 2/3이상 출석(5명)과 재적위원 과반수(4명)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나. 소청심사제도의 운영결과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내용에 따라 소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결정은 소청인의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감경을 명하는 인용 결정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하게 된다.

결정은 처분권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피소청인은 이유 없이 결정내용에 따라야 하며 소청인은 결정 내용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표 2-439> 연도별 소청심사청구·결정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소청심사 청구 건수			심사·결정				취하	이월	인용률 (%)
	계	신규 접수	전년도 이월분	계	인용	기각	각하			
2005	124	28	96	122	111	11	-	2	-	91.0
2006	28	28	-	26	20	6	-	-	2	76.9
2007	45	43	2	40	19	21	-	2	3	47.5
2008	25	22	3	23	16	7	-	-	2	69.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오범열,
송무담당 심남식, 담당자 정혜원

7-6. 소송사무 추진

소송사무는 주민의 권리구제, 행정의 신뢰성제고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패소사례 전파, 송무 및 법제교육 등으로 올바른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와 함께 고문 변호사제도 운영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보상, 손실보상 청구소송·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12월 말 현재 계류된 소송건수는 24건이며, 종결된 39건의 승소율은 95%에 이르고 있다.

<표 2-440> 연도별 소송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피(제) 소 건 수			종 결			계류중	승소율 (%)
	계	이월	신규	계	승소등	패소		
2004	61	29	32	20	20	-	41	100
2005	59	41	18	28	26	2	31	93
2006	60	31	29	21	21	-	39	100
2007	66	39	27	29	28	1	37	95
2008	63	37	26	39	37	2	24	9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오범열,
송무담당 심남식, 담당자 정혜원

8. 지방행정의 정보화

8-1. 지역정보화 추진

가. 지역정보화 추진 실적

(1)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확대보급 완료

도내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확대 보급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140억원을 투자(국비 25%, 도 및 시군비 25%, KT 50%)하여 2006. 1월~2008. 12월까지 3년간 1,600개 마을, 28,000가구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 완료하였다. 따라서, 2005년 인터넷 보급률 96%에서 99%로 개선되어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지원, 인터넷을 통한 지역 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도·농간 정보교류 확대로 농어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IT인프라 고도화(광대역통신망)사업 등 도민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기획보안담당 김종균, 담당자 박성인

(2) 도민 정보화교육 실시

전 도민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도민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08년 목표 연10만명)하여 시군 전산 교육장과 정보화사랑방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인터넷민원신청, 인터넷 활용, 문서 및 홈페이지 작성 등 초·중급 수준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104천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민과 도시민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지역정보담당 노관구, 담당자 남승효

(3)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앞서가는 농어촌마을로 변모시키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 국비(행정안전부)와 지방비(도비, 시군비)를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道에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45개 정보화마을을 조성 추진해 왔다.

2009년도에는 순수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무안군 봉탄면 약실마을, 장흥군 장평면 우산지렁이마을, 진도군 조도면 신전마을 등 전국에서 제일 많은 3개 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양적확대와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내실화를 병행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는 2002~2004년 6억9백만원, 2005년 6억5천2백만원, 2006년 28억9천3백만원, 2007년 30억7천 9백만원, 2008년 32억7천7백만원으로 2008년말 현재 100억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체험관광도 2008년말 현재 2억7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어촌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지역정보담당 노관구, 담당자 임춘모, 남승효

(4) 마을회관(경로당) 정보이용환경 조성

도민의 정보이용 활성화와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주민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여 농수산물 유통 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KT전남본부와 공동으로 2007부터 2009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인터넷 이용을 희망하는 도내 2,200개소 마을회관, 경로당에 PC 보급과 인터넷 개설,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기업인, 출향향우 등을 대상으로 “1마을 1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기증 받은 신품PC 또는 중고PC를 정비하여 각 마을에 보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까지 1,706개소에 PC 보급과 인터넷 개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 IT봉사단, IT서포터즈 및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화선도자가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수리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등 지식습득은 물론 컴퓨터 기초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기획보안담당 김종균, 담당자 남길수

8-2. 행정정보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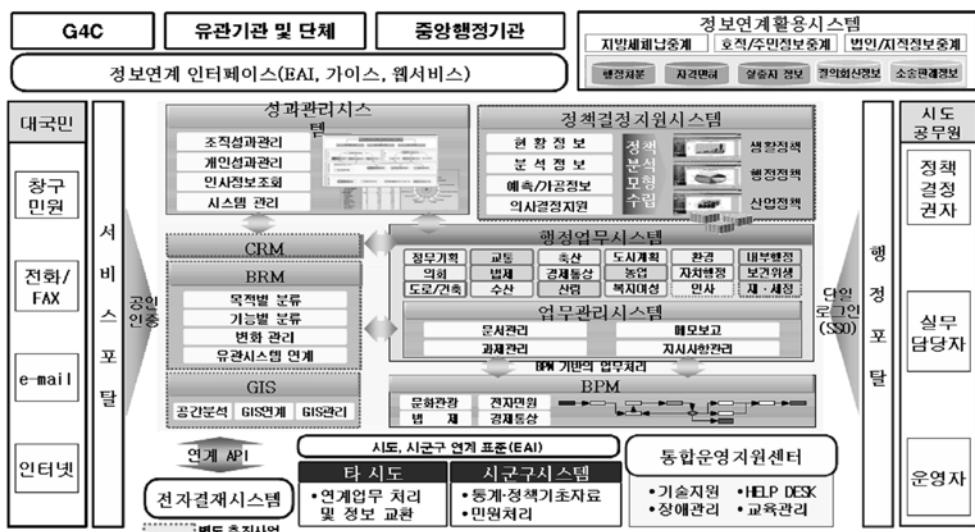
가. 도정정보화 운영

(1)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중앙 ↔ 시도 ↔ 시군구를 연결하는 시도행정정보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시도행정정보화사업은 전국 16개 시도의 25개 분야 내부 행정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대민 서비스 실현과 지식기반의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포탈과, 내부 공무원을 위한 행정 포탈로 구성하고, 시도 총25개 분야 중 인사, 재난재해, 소방, 지적, 정보통신 등 연계 개발사업 5개 분야와, 별도 2개 분야(재정, 세정)를 제외한 18개 분야를 1·2차로 나누어 개발·보급 완료하였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시스템으로 업무 흐름관리(BPM) 개발과, 행정업무의 기능고도화(개선)를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서의 생산과 유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시도 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 BPM 적용대상업무 : 4개업무(전자민원, 문화관광, 법제, 경제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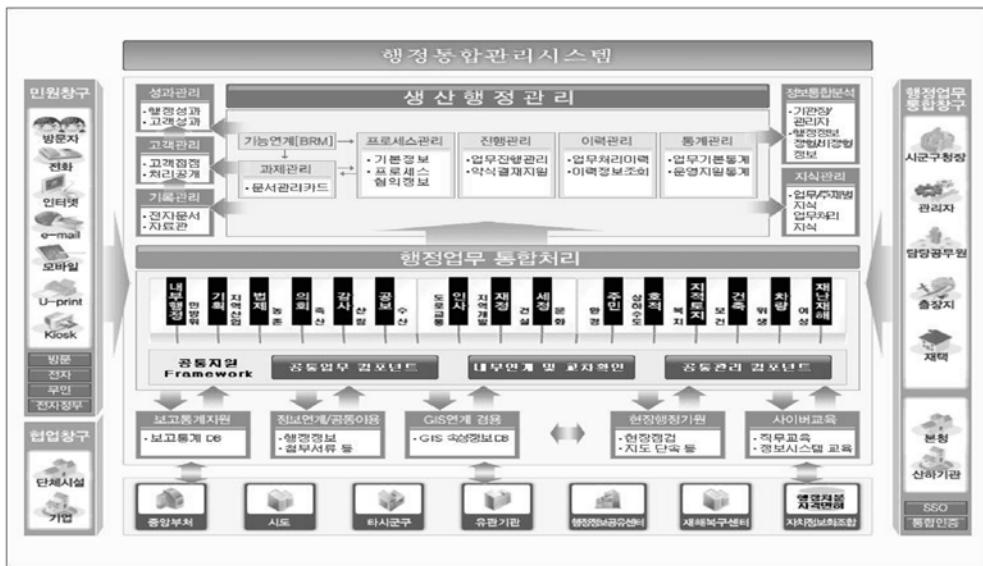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김현주, 김정미

(2) 시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지방행정 및 민원의 획기적 개선과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단계 사업인 토지지적, 민원, 주민등록, 차량 등 시·군의 주요 10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민방위, 내부행정 등 11개 행정업무를 개발 완료하여 2003년 7월 까지 전 시군에 확산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등록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등 40종의 제증명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도움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받고 안내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시군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성도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박성열

(3)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내실화

2004년 1월부터 전자정부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제·개정되는 문서관련 법령·제도를 적용한 문서생산부터 기록보존까지 문서 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재개발한 새로운 전자문서 소프트웨어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급 받아, 2003년 12월 신 전자 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에게 1인 1PC를 보급하고 2004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2008년 말 현재 전자결재 실적은 97.6%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우리 도와 중앙부처간, 2002년 10월부터는 시도와 시군 간을 포함한 전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인 문서 유통을 실시하여 문서처리의 전 과정이 전자화 되어 종이 없는 행정 구현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도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확대·운영 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전자결재와 유통이 통합된 전국 단일화 전자결재시스템인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박성열

(4) 도 백업센터 구축·운영

2002년부터 지적, 환경, 세정 등 시군의 8개 분야 행정업무 처리 시스템인 시군행정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도에 22개 시군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백업하여 관리하는 도 백업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박성열

(5)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전라남도 및 22개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서명을 등록·발급하여 민원업무 등 행정처리 절차에서 전자적인 개인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구축되어 전자정부구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07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운영중이다. '08년 현재 22,279명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등록 발급하였으며, 특히 출장 중에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원격지 근무지원 시스템에 전자인증서가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정창영

(6) 시도행정복구시스템(DR) 운영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에 시도행정복구시스템(DR)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내에 구축·운영중이다. 이 시스템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18개 행정업무와 인사행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백업하는 시스템이다. 시도행정복구시스템(DR)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우리 도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김정미

(7)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자동차의 출고부터 폐차까지 정보를 관리하여 차량의 등록, 검사

는 물론 과세자료 제공 등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여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교통정책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지난 '90년 3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01년부터는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시스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였고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에 전산망을 확대하여, 각종 인터넷 관련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표 2-441>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현황

(2008. 12. 31 기준)

구분	주전산기	단말기	자료량
계	2대	658대	782.2천대
자동차		300대	661천대(승용 419, 버스 45, 화물 193, 특수 4)
건설기계	2대	64대	21.2천대(자가용 9, 영업용 12, 관용 0.2)
이륜차		294대	100천대(자가용 98, 관용 2)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김현주

(8) 지식나눔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각종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7. 12월 행정환경에 맞도록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하우, 업무계획, 성공/실수 사례 등 8개 분야 29개 항목의 지식맵으로 구성하여 2008년 12월 현재 5,611건이 등록되었으며, 조직외부의 우수지식을 공유하고 활

용하기 위해서 정부지식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송하석

(9) 전산·통신장비 무정전전원시스템(UPS)설치 운영

전산·통신장비시스템의 24시간 무정전 전원공급을 위해 무정전 전원 시스템(UPS)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각 시설별로 전산용($150\text{KVA} \times 2$ 대), 전산백업용($150\text{KVA} \times 1$ 대), 통신용($100\text{KVA} \times 2$ 대)을 설치하여 전산 및 통신장비의 주전원이 정전되어도 중단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모든 시스템에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행정정보담당 임성수, 담당자 정창영

(1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인터넷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해킹 및 웜·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상의 공격으로부터 기관내 행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 7억원을 투자, 도 자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였다. 위협관리시스템(TMS),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및 종합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 산하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관제로 정보보호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본다. 2009년도에는 약 4억원을 투자하여 중앙, 타시도 및 시군을 연계, 침해상황 공유, 조기경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기획보안담당 김종균, 담당자 박성인

8-3. 행정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고도화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도↔시·군 간에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을 최첨단 방식으로 구축·운영함은 물론 제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통신민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One-stop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보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보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표 2-442> 행정 정보통신시설 현황

장비별		구분	계	도	시·군	비고
합계		4,242	246	3,996		
전화교환기	구내용	23	1	22		
	시외단일망용	1	1	-		
	IP전용	6	1	5		
전송장비	DWDM·MSPP·FM	167	11	156		
	회선다중화장비	215	7	208		
영상회의시스템		24	2	22		
무선시설	고정국, 기지국	798	28	770		
	휴대국, 차량국	1,541	14	1,527		
일제전화장치		1	1	-		
팩스동보장치		20	3	17		
팩시밀리		1,212	156	1,056		
위성장비	SNG	1	1	-		
	위성전화기	172	3	169		
초고속 정보통신 회선		23	1	22	2.5G	
음향시스템		26	4	22		
방송중계시스템		1	1	-		
IP영상동보시스템		1	1	-		
키폰시스템		6	6	-		
EZ Messenger		1	1	-		
과금관리시스템		3	3	-		

가. 행정전화교환기 운영

중앙↔도↔시·군 간에 음성 및 팩스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전화교환기를 운영하고 있다.

(1) 전국단일망교환기

전국을 하나의 단일 통화권으로 구성하여 행정기관 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시외전화는 시내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또한 신속·정확한 민원팩스 송수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 구내전화교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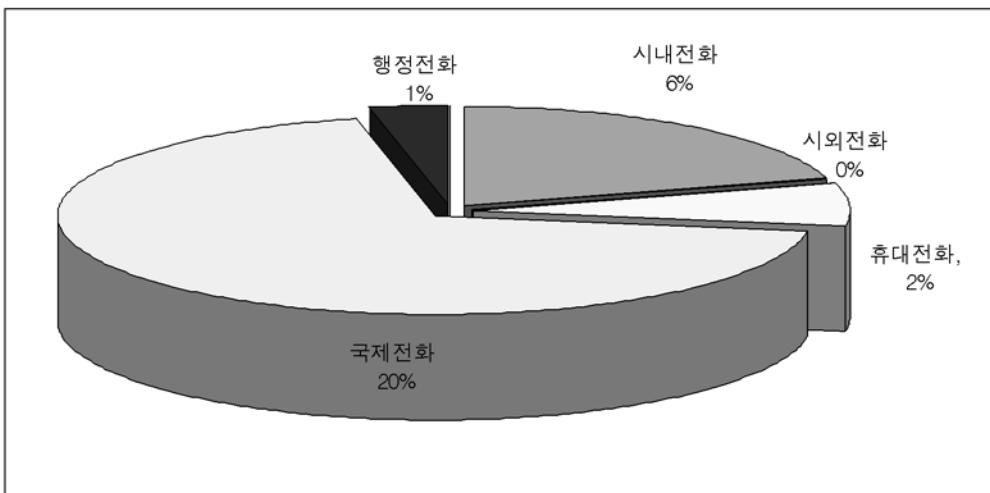
도 본청 전 직원에게 1인 1대 디지털 구내전화기를 보급하여 전화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전화통화에 따른 통화료 부담과 시간의 제약성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화기를 이용한 예약통화, 착신전환, 송화차단, 재다이얼, 통화내역조회, 개별단축 등의 다양한 기능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리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별 전화번호 부여로 민원인이 업무담당자를 직접 호출하여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통신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표 2-443> 종류별 전화통화 이용 현황

종류별	2008(건)		2007(건)		증감률	비고
	연간	1일	연간	1일		
합 계	2,441,037	6,687	2,402,991	6,582	2%	
시내전화	166,653	456	157,475	431	6%	
시외전화	2,296	6	2,284	6	-	
휴대전화	857,065	2,348	844,403	2,313	2%	
국제전화	6,429	18	5,308	15	20%	
행정전화 (전국단일망)	1,408,594	3,859	1,393,521	3,81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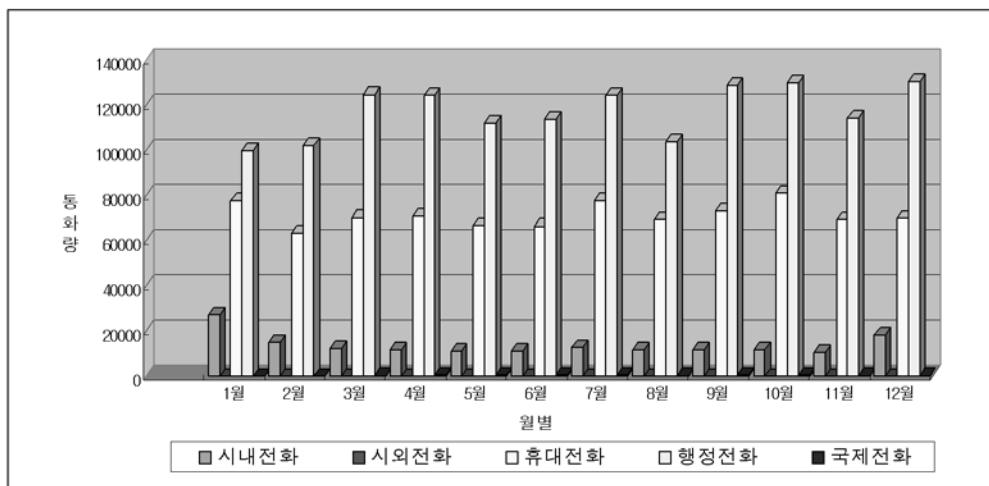
<표 2-444> 전년대비 통화종류별 증감률



<표 2-445> 2008년 월별 전화통화량

구분 월별	합 계	시내전화	시외전화	휴대전화	행정전화 (전국단일망)	국제전화
합계	2,441,037	166,653	2,296	857,065	1,408,594	6,429
1월	205,615	27,138	196	77,794	100,146	341
2월	181,485	15,342	195	63,494	102,114	340
3월	207,975	12,534	191	70,262	124,546	442
4월	208,282	11,839	171	71,313	124,427	532
5월	190,651	11,162	176	66,718	112,044	551
6월	191,929	11,136	156	66,361	113,678	598
7월	215,847	13,066	188	77,696	124,341	556
8월	185,963	11,842	195	69,578	103,857	491
9월	214,715	11,705	201	73,190	128,861	758
10월	223,952	11,693	215	81,124	130,043	877
11월	194,819	10,562	211	69,353	114,241	452
12월	219,984	18,634	201	70,182	130,296	491

<표 2-446> 종류별 전화통화 이용 현황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손재형

(3) 일제전화 · 팩스동보시스템 운영

1: 다수 간에 전화는 물론 문서를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동일한 내용을 도청에서 22시 · 군에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 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김성미

(4) 교환중계실 운영

도 본청 대표전화에는 일일 평균 약 1,200통의 민원인의 전화가

착신되고 있는데, 민원인은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교환원은 실과별 업무 흐름도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부서와 전화번호를 숙지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 시작 1시간 전과 일과 후 30분, 중식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정유화

나. 전자정부 통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강화

(1) 중앙↔도 간 전자정부통합망(1단계) 구축 · 운영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4. 8월에 중앙과 16개 시 · 도 간에 3대 정보통신망(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 전국단일망)을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 ·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핵심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통신망(Network) 운영의 안전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약 21억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2) 도↔시 · 군 간 전자정부통합망(2단계) 구축 · 운영

2006. 8월에 도와 22시 · 군 간에 6대 정보통신망(단일망, 음성망, 경보망, 소방망, 재난망, 정보망)을 통합 · 구축하여 대용량의 전송 대역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화량 집중을 해소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통신망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연간 약 16억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3) 시 · 군↔읍 · 면 · 동 간 전자정부통합망(3단계) 구축 · 운영

2007. 9월에 전국 최초로 시 · 군 ↔ 읍 · 면 · 동(사업소, 소방안전

센터) 간의 830개소에 전자정부통합망을 구축하여 대용량 초고속 통신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통신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어 향후 유비쿼터스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김관식

다. 전국단일행정통신망 운영

행정안정부 주관으로 1999. 1월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구성하여 약 27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단일행정통신망(이하 “전국단일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였다.

이 통신망은 현재 도내 70개 기관의 2,037회선을 수용하여 공공요금 절감은 물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전화요금 절감

과거 행정기관 간 전화접속은 다단계방식으로 구성되어 행정업무 처리가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나, 현재는 직접통화방식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의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시내전화요금(1통화 약 39원)으로 시외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선창완

(2) 팩스민원서비스 효율성 증대로 민원인 편의 도모

민원인이 요구하는 호적등본, 토지관리대장 등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일반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이용요금이 소요되지만, 전국단일망을 이용할 경우 팩시밀리 민원수수료를 약 50% 인하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정혜윤

(3)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통신망 이용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맞춰 경제·문화적으로 국제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전화, 팩스, 이동통신 등을 이용한 국제통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단일망에 기존의 국제전화망을 접속하여 이용요금의 약 50%를 인하함으로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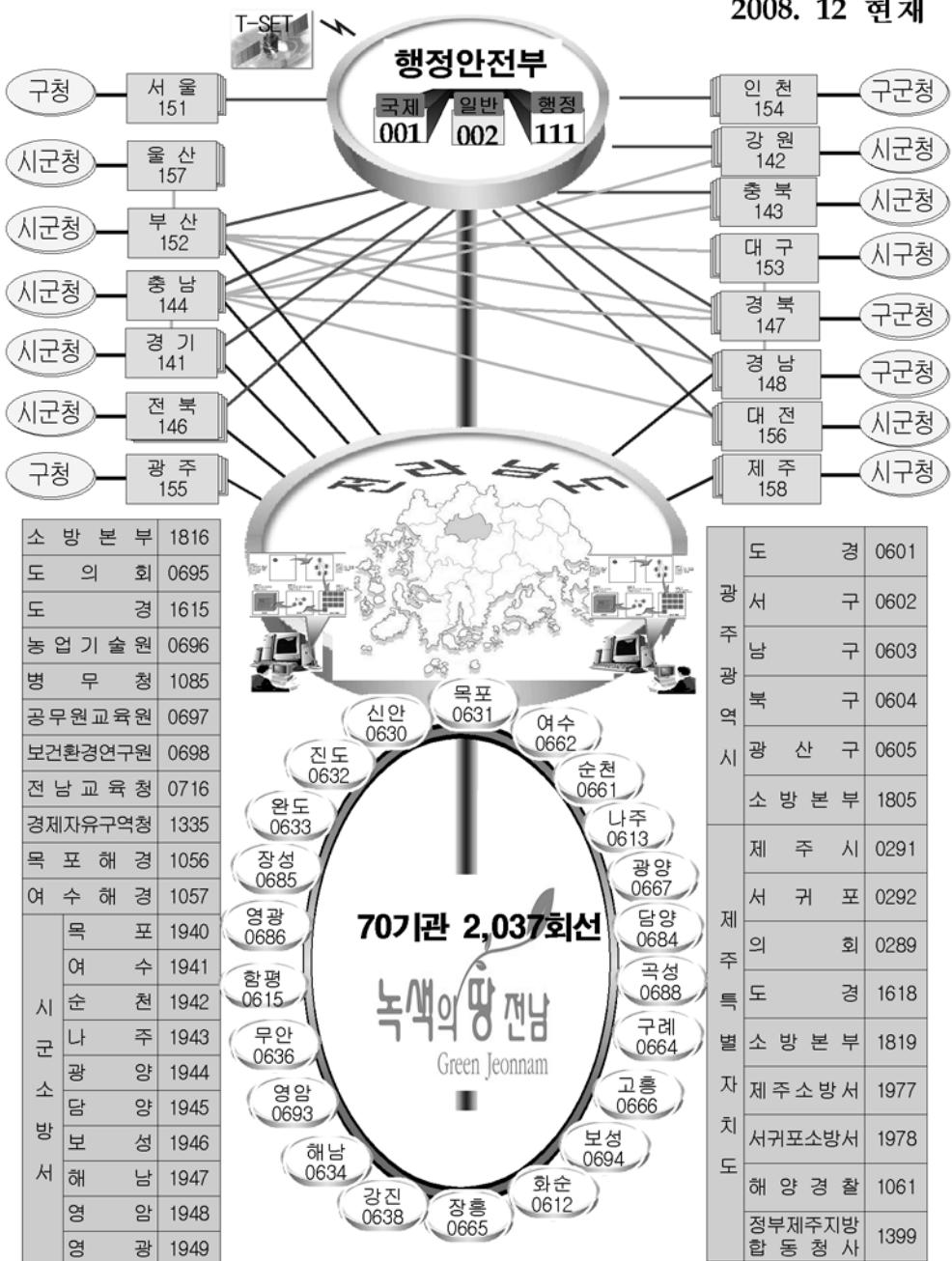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이영순



전국단일행정통신망구성도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

2008. 12 현재



라. 도민의 전화이용 편리성 제고

(1) 전국 생활민원서비스전화(120번) 운영

2002. 3월부터 도민이 일반전화로 120번을 걸면, 해당 지역 시·군청 전화교환중계대로 연결되어 전화교환원이 직접 응대하여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담당부서 또는 다른 지역의 행정기관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시·군청 대표번호는 7자리로 구성되어 도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120번 전화는 이를 해소하여 도민의 전화이용에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오종희

(2) 전국공통 모바일 민원서비스전화 운영

2007. 4월부터 민원인이 휴대전화를 이용, 전국 어디서나 공통번호를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인근의 관공서로 자동 연결되어 민원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전국공통 번호체계를 살펴보면, 시·도의 경우 1577-3333, 시·군은 1577-2222, 읍·면·동은 1577-111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민원인이 여수시 돌산읍에서 1577-1111번을 호출하면 기지국에서 민원인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돌산읍사무소로 전화가 연결되게 된다.

현재 대상민원은 토지대장열람 및 등본교부 등의 8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표 2-447> 2008년 모바일 민원서비스전화 이용현황

구분	합계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5,515	2,168	1,892	1,901	2,240	1,881	859	2,156	2,343	2,252	2,374	2,460	2,989
1577-1111	16,672	1,470	1,391	1,328	1,422	1,230	120	1,297	1,612	1,591	1,597	1,652	1,962
1577-2222	6,128	463	315	409	567	472	497	570	470	450	575	608	732
1577-3333	2,715	235	186	164	251	179	242	289	261	211	202	200	295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오종희

마. 영상·음향시스템 운영

(1)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기존 영상회의시스템은 2008. 4월에 선명한 영상구현이 가능한 HD급으로 교체하여 중앙↔도↔시·군 간의 선진 회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최첨단 영상회의시스템은 각종 회의, 교육, 업무협의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 및 경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담당자 간에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을 도내 유관기관 및 민원인에게 개방 할 계획이며, 이 경우 도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도정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448> 연도별 영상회의 이용현황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	증감율 ('08/'07)	비 고
합 계	53회	71회	65회	△25%	
중앙↔도	29	32	30	△ 9%	
도↔시·군	24	39	35	△38%	'08년 상반기 영상시스템 교체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천희석

(2) 영상동보시스템 운영

2007. 9월에 도↔시·군↔읍·면·동, 보건소 및 사업소 등 주요 기관까지 동시에 영상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영상동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시·군청 영상회의시스템 및 공시청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도 본청의 각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 포럼, 교육, 도정소식(JN뉴스)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 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케이블TV망과 연계 할 경우 도민에게 농사정보, 농수산물 시세, 기상정보 등의 주요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장성희

(3) 음향시스템 운영

청사 내 각종 회의실에 설치된 최첨단 음향(영상)시스템을 이용하

여 대내외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대중강당(대강당)에서는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회 등의 공연이 가능하다. 이 외에 왕인실(대회의실)과 서재필실(상황실)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내용은 IP동보망 및 道청내 TV공시청을 이용하여 시군 및 道청내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직원들의 정보공유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김성미, 정혜윤, 박미경

바. 재난·재해 대비 위성통신망 운영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유선통신망 두절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KT(주) 무궁화 위성통신망에 전국 단일망을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5. 5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재해 발생지역의 지상통신망 두절에 대비하여 이동형 위성중계장치(SNG)를 241백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여 유사시 대비 평소 취약지역에서 직접 소통 시험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양동주

사. 정보통신 신기술교육 내실화

정보통신 신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도 및

시·군청 정보통신 업무담당공무원의 최신 신기술 습득과 업무연찬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KT인재개발원,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IT인재개발교육원 등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과정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공무원들의 기술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천희석

8-4. 對도민 행정통신 민원서비스 추진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리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적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법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능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 기술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자)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을 보유하고, 사무실 면적은 $15m^2$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와 관련한 양도·양수, 폐업, 영업정지, 등록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

2008년도 공사업등록 업무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163건,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21건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양동주

<표 2-44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현황

〈전국〉

(‘08. 12월 현재)

시도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수	6,554	2,139	449	342	228	200	253	101	1,261	202	145	187	198	241	256	266	86

〈도내〉

시군별	업체 수	시군별	업체 수
합계	241		
목포시	31	장흥군	2
여수시	27	강진군	5
순천시	32	해남군	1
나주시	23	영암군	6
광양시	14	무안군	9
담양군	14	함평군	5
곡성군	5	영광군	11
구례군	2	장성군	9
고흥군	4	완도군	1
보성군	5	진도군	3
화순군	31	신안군	1

<표 2-450> 2008 민원처리실적

구분	합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행정처분				
		소계	신규 등록	재등록	양도 양수 (합병)	폐업	재교부	소계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청문
추진 실적	184	163	14	104	2	3	40	21	6	10	2	3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거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등록기준(재등록)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면적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적격심사이다.

이러한 등록 기준신고 기간을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연초에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양동주

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 TV, 위성방송, FM 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시장, 군수가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도내 22시·군에서 추진한 사용전검사실적(1,668건)은 2007년의 검사실적(1,491건) 비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에서는 사용전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 및 검사능력 등의 전반적인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최명철

라.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지원체계 강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리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 등의 사무 전반에 대한 민·관 합동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즉, 도, 시·군 업무담당자와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공사업체 대표 등이 공동으로 참석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우수·수범사례 발표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민 민원업무 추진시 도내 기술기준 및 법규 적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업무담당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보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오종희

8-5. 통신보안 활동

가. 정보통신보안 감사 및 지도점검 활동

국가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가 정보통신 핵심인프라 기반 위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만큼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보안관리 방향의 정립은 물론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책임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통신보안감사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집중 보안관제 및 통합전송망 관제를 통해 유해(有害) 트래픽 차단 감시, 사이버테러 등 각종 위협 요소로부터 사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도 산하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안환경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최명철

나. 도청 보안 측정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담보하고, 국가기관 행정정보 유출은 한 나라의 국가 기반을 담보로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 수집을 위한 패권다툼이 치열한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가 무한경쟁 체제로 접어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기밀, 산업기술 등 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어체계 또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보보안관리 강화는 물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보안검증 및 탐색장비를 확보하여 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對 도청(盜聽) 방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보안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보안사고와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 및 산하 기관에 대해 국가정보원 위탁 순회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자율적 보안관리 대처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새로운 보안관리방안의 정립을 통해 공직자의 보안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최명철

다. 보안시스템(음어자재 및 암호장비)관리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시 중요한 정보의 보안유통을 위하여 행정 공통용, 전시동원업체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음어자재의 변경 사용, 배부 및 회수, 반납 등 보안시스템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간 운용되었던 노후화된 팩스용 보안장비를 2007년 8월에는 보안기능이 강화된 최신형 암호장비로 일괄 교체하여 국가기관 암호키 호환성 확보는 물론 전·평시 비밀문서의 안전한 유통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최명철

8-6. u-IT 기반의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정보통신분야 지원

가. 정보통신분야 추진상황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17시·군 62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됨으로써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완벽한 구축과 지원체계 강화대책이 필요하

였다.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 관계관 회의개최 및 기간통신망사업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분야별로 단계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제거하였다.

나. 정보통신시설 구축 운용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원하였다. 주 경기장(스포츠센터)을 정점으로 17시·군 62 경기장에 전국행정전화망과 연계하여 All IP체제의 교환망을 반영구 시설로 구축함으로써 향후 각종 행사에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함은 물론 예산의 중복투자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반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개회 10일 전에 구축을 완료하였다. 경기장에는 정보통신망(LAN, 전화, 팩스, 공시청망 등) 1,484회선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장비는 1,269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자체 음향시설 지원이 불가능한 25개 경기장에는 최신형 4개 타입의 음향장비를 임차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국체전 최초로 무선인터넷(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을 개통하여 인터넷 음영지역을 100% 해소함으로써 방송사 및 취재기자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화 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전화 연결은 물론 각종 관광정보, 교통, 숙박 등 길안내정보를 개인 휴대전화에 One-Stop으로 제공하여 "친절한 전남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 문대원,
정보통신담당 이영학, 담당자 최명철

9.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

9-1. 전남 경제 살리기 우수 시·군 평가

가. 추진배경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전남경제 살리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코자 전남 경제살리기 우수 시·군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 평가계획 및 방법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의 경제살리기 관련 3개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촉)에 대한 시·군 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초에 담당 실국별로 평가하고 행정과에서 종합하여 분야별 최우수 시·군 3개 기관을 선정하여 2억원씩을 지원하고, 분야별 우수 시·군 2개 기관씩 6개 기관을 선정하여 1억 원씩 총12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5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사기양양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평가사업 및 항목을 실질적 효과측정이 가능하게 대폭 축소하고 외부전문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실효성을 높였다.

<표 2-451> 2008년 경제살리기 우수 시·군 평가결과

분야별	최우수 시·군	우수 시·군	비고
지역경제활성화	목포시	순천시·영암군	
관광진흥	완도군	담양군·순천시	
농수산물 판촉	합평군	신안군(농산), 완도군(수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행정담당 장석홍, 담당자 김정섭

9-2. 광역행정 기능 활성화

가. 광역행정 기반 구축

(1) 필요성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분권화, 민주화, 주민 가치관의 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주민의식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추세에서 2개 이상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광역행정 수요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왔다.

시·군간 현안과제 발생 추이

('01)74건→('02)63건→('03)38건→('04)53건→('05)37건→('06)44건→('07)43건→('08)36건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광역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모색하였다.

(2)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95년 이전까지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를 포함하여 목포권행정협의회, 여수권행정협의회, 여·순권행정협의회 등 모두 4개의 협의회가 있었다.

이들은 행전안전부(당시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86년도(시도협의회는 '8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당시 28개 시군 중 12개 시군만가입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6개 시군은 10여년 동안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이들 16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99년 3월까지 신규로 3개의 행정협의회를 신설('95 : 2, '99 : 1)하게 되었다.

우선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화순군, 함평군을 끓어 북부권행정협의회를 '95. 6. 7 신설하였고, '95. 12. 22 남해권행정협의회를 신설하여 남해안지역 일대 시군 즉, 장흥군, 강진군, 보성군, 고흥군, 완도군을 가입시켰다.

이와 함께 '96. 7.16 기존의 목포권행정협의회를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진도군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여수권행정협의회는 '98. 4. 1 "3여"통합으로 폐지되었으나, '99 3.11 목포, 나주, 담양,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을 끓어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02. 8. 27 나주, 무안, 함평군이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전 시군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광역행정 체제(8개 협의회)를 갖추게 되었다.

(3)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민선자치이후 시 · 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사업추진 등을 놓고 주민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갈등분쟁의 원인이 자기 지역 내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반면, 비혐오시설은 앞 다투어 유치하려는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쟁을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하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갈등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역안정을 해치고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 분쟁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급적 행정협의회 또는 해당 시장·군수간에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토록 유도해 나가고, 시·군간 협의타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울촌 제1산단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순천시 ↔ 광양시)인데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1회, 현지확인 2회)하여 심의·조정한 바 있다. 2003. 8. 28 광양시에서 현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현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하여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에 기속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안건을 다룬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3. 12. 26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하였다.

현법재판소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의 변론을 통해 이해당사간의 의견을 들었으며, 2006. 9. 13 울촌제 I 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현대하이스코(주)가 분양받은 산업단지에 대한 관할권은 광양시에 있다는 권한쟁의심판결정을 내려 6년간 끌어온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

나.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1) 호남권정책협의회 운영

2005년도에는 호남권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호남권 발전방안을 실무협의회 구성” 등 10건의 안건을 발굴 협의하여 광주·전남·전북 3개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광주시에서 회의를 갖고 21세기 호남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광주·전북·전남 관광코스 개발 등 10건의 협력사업은 활

발히 추진키로 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08년도에는 16건의 안건을 발굴 협의하여 3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중에 있다.

(2) 시군 행정협의회 운영

시군행정협의회는 최근 6년 동안 총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며,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등 3개 협의회가 각 4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다.

이 기간동안 시군행정협의회에서 총 234건의 현안과제를 상정하여 해결한 바 있는데, 주요 해결사례로는 영산강 생태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수 방류 의무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인사교류(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 등이다.

2007년도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협의회 운영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등 5개 협의회 등 7개 협의회에서 4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합의하는 등 활발히 추진하였다.

2008년도에는 3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합의하는 등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시군 행정협의회는 지역간 현안과제를 협의·조정하는 유일한 광역행정 창구로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다.

다. 기능별 행정협의체 구성 · 운영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광역행정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능별 행정협의회 출현이라 할 것이다.

기능별 행정협의회는 기존의 행정협의회가 행정구역 중심으로 결성된 것인데 반해 특정업무 중심으로 결성된 것으로 도에서는 광역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95. 4월에 결성된 주암호 수질보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개의 기능별 행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5. 6월에 순천, 남원, 장수, 거창, 하동 등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가야문화권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행정담당 장석홍, 담당자 박재환

9-3. 동서교류 협력사업의 내실화

가. 추진실적(총괄)

우리 도의 주도적 노력으로 '98. 10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2007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국책사업 건의, 공동선언문 발표,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행정에서 시작된 동서화합 노력은 각계각층의 민간 교류·협력 활동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우리 도는 매년 동서화합을 도정역점시책으로 선정하고 영·호남 대학친선 체육대회, 노사화합 동서한마당, 영·호남 청소년수련캠프 운영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구례~하동간 「남도대교」 착공과 경남과의 적조 공동 예찰·방제 등 공동 협력사업 추진으로 양 지역간 교류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영·호남 8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행정자치부가 지원하여 조성한 동서화합기금으로 「동서교류협력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주요 교류·협력사업

(1) 동서교류협력재단 설립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합의에 의해 동서화합기금 30억원을 조성 지속적인 동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00. 1. 29일 우리 도가 기본자산으로 2억원을 출연해 초대 이사장으로 우리 도 자치행정국장을 선임,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하였다.

이후, 부산 등 8개 시도가 2억원씩 기금을 출연하고 행정자치부가 특별 교부세로 14억원을 지원, 총 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과실금으로 영·호남 청소년 수련캠프 등 2001년에 총 8개 사업에 224백만원, 2002년 10개 사업에 149백만원, 2003년 11개 사업 332백만원, 2004년 10개 사업 147백만원, 2005년 9개 사업 110백만원, 2006년 11개사업 136백만원, 2007년 10개사업 126백만원, 2008년 11개사업 14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도 단위 주요 추진사업

영·호남 8개 시도 남·여 중학생 88명을 우리 도에 초청 영·호남 청소년수련캠프를 운영하여 영·호남 청소년간 우의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꿈나무들로 하여금 동서화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영·호남 한마음결의대회, 새마을지도자 영·호남한마음수련대회, 테니스 동호회원간 교류, 영·호남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추진하였다.

(3) 시·군단위 주요 추진사업

담양군과 대구 달성군의 담양 죽향축제 친선방문, 곡성군과 부산 서구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석, 구례군과 거제시간 목포대첩축제 및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 방문 축하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 행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4) 유관기관·단체간 교류

장흥군 새마을부녀회와 부산 영도구 새마을부녀회의 “우리쌀먹기 운동” 전개, 완도군과 영남자원봉사단체간의 “영·호남 자원봉사전진 대회”, 여수시와 통영군간의 청소년단체 문화축제, 시립 합창단교류, 시조인 교류전, 미술교류전 등 다양한 계층의 교류가 전개되었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지금까지 다져온 동서화합 기반을 바탕으로 양지역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교류방식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행정담당 장석홍, 담당자 박재환

9-4. 시험업무의 엄정한 관리

가. 인터넷을 통한 시험 정보안내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험 시행계획 등 시험 관련 정보와 공고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응시생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전남 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를 통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원서교부 및 접수,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나. 각종 고시관리 실적

(1) 각종 임용시험의 엄정 관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

하고 있으며 도본청 및 사업소, 시군의 결원은 인력관리과에서, 소방직은 소방행정과에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요구를 하면 연간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도에서는 완벽한 시험관리를 위해 행정동 21층에 편집실을 설치하여 인쇄기, 재단기 등 2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시험 일정에 대학 교수 및 고등학교 교사에게 시험문제를 출제 의뢰한 후 문제은행에 철저히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출제 및 인쇄기간 동안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하여 시험 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표 2-452> 지방공무원공임시험 실시현황

(단위 : 명)

선발예정 인원	출원인원	합격인원			충원율 (%)
		계	남	여	
456	11,143	433	258	175	94.9

(2) 특별임용시험 시행

특별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응시대상자는 가능한 임용예정직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나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453> 특별임용시험 실시현황

(단위 : 명)

회수	요구인원	출원인원	합격인원	임용기관	
				도	시·군
8	131	1,319	114	42	72

(3) 자격·면허시험 시행

자격시험의 시행관리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일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2-454> 자격·면허시험 실시현황

(단위 : 명)

구 분	출원 인원	응 시 인 원			합 격 인 원			합격률 (%)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674	1,507	268	1,239	1,265	195	1,070	84
간호조무사	1,420	1,326	92	1,234	1,141	75	1,066	86
수 렵 면 허	254	181	176	5	124	120	4	69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장 김영안,
고시훈련담당 김영신, 담당자 이상권

9-5. 내실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가.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1) 교육훈련계획 수립 절차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매년 교육훈련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신설·폐지·증설·통폐합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학숙기간, 교육기간, 교과목에 관한 사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훈련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교육 훈련계획을 확정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한국생산성본부에 교육운영 전반(사이버교육 운영 제외)을 위탁, 창의적·현장체험형 교육 등 교육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를 비롯하여 22개 시·군(읍면동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역량제고를 위해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이러닝교육 등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교육은 신규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및 공직윤리 확립과 행정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학문위주의 교과목 보다는 지역현안, 행정실무 중심의 교과목을 늘려 교육이수가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습과 직무수행이 통합되는 상시학습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문교육의 단기 세분화 및 이러닝 방식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로 교육훈련 수요 증가에 대처하였으며,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정, 친환경농업과정, 관광레저과정, 노인복지과정 등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시책추진 공감대 형성 등 마인드 함양에 주력하였다.

장기교육은 6급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장차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중견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마인드, 리더십, 창의력, 갈등협상조정능력, 사례연구, 현장체험 등 실사구시형 교과목 편성으로 교육원의 대표 브랜드 과정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교육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사전 사회적응 능력배양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사무보조요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닝 교육은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이 가능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한편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08년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여 36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09년도에는 43개 과정으로서 이러닝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전문교육과정에도 e-learning 및 Blended-Learning,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등 교육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담당 고병주, 담당자 윤영주

나. 2008년도 교육훈련 실적

2008년도에는 교육훈련 목표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에 두고 총128과정 233기 18,12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육훈련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경제마인드 함양 및 미래예측 능력제고 및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통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우리도 고유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를 위해 5개 과정 986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기본교육, 전문교육과정에서도 1~2일간씩 주제토의 및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여 교육생 스스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였다.

둘째, 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확립과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청렴교육(32과정 2,736명)과 경제교육(58과정 4,915명)도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도정시책의 이해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운영(2과정 74명), 퇴직예정자의 퇴직 후 직업활동을 위한 사회적응과정 운영(1과정 18명)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넷째,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외국어회화과정(3과정 58명), 이러닝 영어회화과정(2과정 741명), 정보화 교육과정(12과정 1,316명)을 운영하였고

다섯째,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중견간부요원(6급 공무원 59명) 양성을 위해 학문·이론 위주의 교과목에서 벗어나 사례연구, 현장체험, 이러닝교육 등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운영 하였으며, 자신감 배양 및 주민 대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생 1일 강사제 운영,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1인 1자격증 취득, 선진행정 국외연수,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강의식·지식 전달형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참여와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기르기 위해 2주 이상 기본·전문교육 과정에 문제 해결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현업의 실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연구와 생동감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주력하였다.

일곱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문화관광, 미래예측 분야 등 16개 분야 전문가 1,403명의 우수강사를 DB화 하였으며, 원내교수요원의 능력 발전을 위해 휴강기간 중 예행강의 등 교수요원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의기법을 향상시킨 점들은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획 수립 전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다소 미흡하였고, 교육원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육생들이 불편을 느꼈던 점, 과학적인 교육성과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라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표 2-455> 2008년 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구 분	교육유형	교육과정	교육횟수(기)	교육인원
총 계		128	233	18,127
공무원교육	기 본 교 육	2	9	850
	전 문 교 육	87	159	7,456
	장 기 교 육	1	1	59
	이 러 낭	36	61	9,691
	기 타 교 육	2	3	71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담당 고병주, 담당자 최종순

다. 교육훈련 수법 사례

(1) 공직자 경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

투자유치 통상, 지역브랜드 마케팅,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판촉 과정 등의 경제관련 전문과정 개설·운영, 기본 전문교육과정에 경제관련 교과목 편성·운영(농업관련 분야 13개 과정 1,187명, 생물산업 등 첨단 신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미래 분야 등 40개 과정 3,312명), 교육생 경제신문 구독 등 공직자 경제마인드 함양에 주력하였다.

(2) 행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어능력 향상과정 운영

행정직무수행에 필요한 국어능력 배양을 위하여 올바른 언어사용법, 연설문 및 보고서 작성요령, 공문서 바로쓰기 등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1과정 698명)을 운영하여 국어능력 배양에 주력하였다.

(3)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공직에 첫발을 딛는 신규임용자의 혁신실행능력 향상과 변화와 혁신체험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교육(2과정 760명)을 추진하여 신규임용자의 혁신비전 설정 및 마인드 제고, 대민서비스 마인드 함양, 상하·동료간 신뢰와 배려, 극기훈련을 통한 열정 및 도전의식 함양에 주력하였다.

라. 내실있는 지방행정 연수대회 개최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사회 연구·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연수대회를 개최 하였다.

시·군별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부여된 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심사를 거쳐 발표회를 가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팀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공모방식으로 운영하여 9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11월 28일에 발표회를 갖고 목포 원도심 르네상스 21을 최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수논문의 시책화 장려를 위해 우수논문을 수록한 논문집을 발간·배포하였다.

<표 2-456> 2008 지방행정연수대회 우수기관 현황

(단위 : 천원)

시상결과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군	시상금	시군	시상금	시 군	시상금
9개 시·군 (10,000)	목포	3,000	광양 담양	2,000 2,000	장흥, 무안, 해남, 영광, 나주, 고흥	3,000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담당 고병주, 담당자 윤영주

마. 교재편찬

교육시간이 3시간 이상인 교육과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하에 집필한 공통교재 및 교육원 자체에서 담당 교수가 집필한 자율교재 등을 편찬하여 교육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008년도의 경우 총 77개 과정에 공통교재 21종, 전산교재 21종, 자율교재 138종을 편찬하여 활용하였으며, 교재편찬이 어려운 중견간부양성과정, 외국어과정,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대비과정, CAD 과정 등의 경우는 담당교수로부터 우수한 양질의 교재를 추천받아 구입 활용토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담당 고병주, 담당자 최종순

바. 성적우수자 시상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고자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의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시상금은 기본교육, 전문교육의 경우는 1등, 2등, 3등에게 각각 150천원, 100천원, 70천원을 지급하고, 장기교육의 경우는 1등, 2등, 3등에게 각각 300천원, 200천원, 100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총 6과정 13기 33명에게 3,930천원의 교육 시상금을 지급하였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담당 고병주, 담당자 윤영주

사. 교육환경 개선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무원교육원 시설 유지관리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457> 교육환경개선 사업현황

(단위 : 천원)

2006	2007	2008
143,926	163,352	130,153
· 화장실 보수 85,213	· 화장실 보수 46,562	· 교육관 도장 32,000
· 본관동 방수 9,900	· 소방배관 교체 43,419	· 주차장 조성 53,850
· 기타 17건 48,813	· 기타 14건 73,371	· 기타 14건 44,303

<표 2-458> 교육기자재와 도서보유 현황

퍼스널 컴퓨터	사이버컴퓨터 보드	프로젝션 TV	빔프로젝터	전산실	도서보유
105대	3대	5대	11대	2실	31,025



공무원교육원 관리담당 김상규, 담당자 신형욱

10. 인사·기구 관리 및 분권업무 추진

10-1. 인사행정의 합리화 추진

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승진인사에 따른 인사기준과 원칙 등을 사전에 인사알림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소속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지속적인 인사분야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하였다.

또한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는 물론 성과위주의 인사정책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사를 실시하였다.

나. 실적주의 인사제도 도입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투자 및 기업유치, 녹색성장산업, 관광정책, 친환경 농업육성 등 역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저 0.5점에서 최고 2.5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중앙단위 기관표창이나 업무관련 창안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대해서도 최고 0.8점까지 실적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을 가미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 투명한 인사행정의 실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주요역점시책부서의 인센티브 제공 및 전보제한기간 준수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실국장 인사자율성 확대로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현장성 제고를 위해 과장급이하 전입·전출대상자 추천 및 실·국장 중심의 「승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부서간 경쟁유발로 도정 역점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실국·실과별 성과평가를 통한 등급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30% → 20%로 조정 및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평가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한 능력이 탁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인사를 실시하였다.

라. 인사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마련

(1) 다면평가방법 개선

피평가자에 대한 경력위주 평가에서 탈피하여 업무실적 및 직원화합도 등 일 중심 평가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면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평가점수의 상대적 강제분포 실시, 평가위원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선정(공정성 확보), 종전의 수작업 점수부여방식에서 전산작업 점수부여방식으로 다면평가방법의 전산화를 통한 다면평가 결과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 어떤 경우에도 수작업에 의한 결과물 활용을 배제하여 전 직원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근무성적 평정방법개선

평정자(실과장)가 정한 실과내 개인 평정점을 본인이 희망하면 개인에게 공지하고, 확인자(실국장)는 실국내 순위를 결정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종전까지는 실국장은 확인자로 50%의 평정권한을 부여했으나 근무평정 권한을 없애고 실국내 조정자로 역할을 변경하였다.

또한 실과장의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실국장에게 이의신청을 가능토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평정자(실과장)와 확인자(실국장)는 협의를 거쳐 조정·결정하고 조정결과를 개인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였다.

(3) 계약직공무원 근무평정 강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에 대하여 그동안 온정적 평가로부터 탈피하여 철저한 실적위주의 평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가시 소속 실국장 및 실과장이 작성하는 직무성과 평가기록부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외부전문가를 보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4) 인사사랑방 개설운영

행정정보시스템에 인사부조리신고방, 사이버상담방, 인사알림방을 개설하고 「인사알림방」을 이용, 타기관 전출·입 희망내용을 신청 받고, 「인사부조리신고방」과 「사이버상담방」은 인신공격성·비난성 허위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으로 운영하고, 제보자·상담자 비밀유지 등 직원 개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다.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장 김영안,
인사담당 신재춘, 담당자 임윤섭

10-2. 기구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가. 추진개요

투자유치 원년의 해로 투자유치 및 F1대회 등 도정 역점시책 전담부서의 기능은 보강하되, 기능쇠퇴·유사중복 분야를 통합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였다.

또한,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역점을 두어, 정부 국정과제 추진 및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능 보강차원에서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환경산업과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과 고품격 지역이미지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과를 각각 신설하는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나. 조직개편 주요내용

도 본청

① 실·국 단위

- 신설 : 투자정책국
- 명칭변경
 -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
 - 농정국 ⇒ 농림식품국
 - 건설재난관리국 ⇒ 건설방재국

② 과 단위(4급)

- 신설 : 기업유치과, 환경산업과, 공공디자인과
- 통·폐합
 - 경제정책과 + 통상수출과 ⇒ 경제통상과
 - 관광진흥과 + 관광개발과 ⇒ 관광정책과
 - 환경정책과 + 수질개선과 ⇒ 환경정책과
 - 재난민방위과 + 복구지원과 ⇒ 방재과
- 명칭변경 : F1지원과 ⇒ F1대회준비기획단

직속기관, 사업소

① 농업기술원

- 신설 : 농업박람회추진기획단

○ 통·폐합

- 관리과 + 친환경교육과 ⇒ 교육관리과
- 농촌지원과 + 기술보급과 ⇒ 기술지원과

○ 명칭변경 : 농산물원종장 ⇒ 농업자원관리소

- ②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자원연구소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장 김영안,
조직관리담당 전영재, 담당자 장정희

10-3.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1)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이어 실용 정부에서도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08.6.1 폐지)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08.9.1 폐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008년 12월 2일 출범 시켰다.
- (2) '지방분권'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주민참여제도 확충 등 부분적 결실도 있었으나 특별행정기관 정비, 국세-지방세 조정 등 핵심과제의 성과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 (3)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확정된 7대분야 20개 지방분권과제(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에 대해 과제의 내용축소 및 변질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4) 중앙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을 크게 높임은 물론 국정 운영에 있어 중앙-지방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5) 지금까지 지방이양 실적으로는 6,369개 사무를 발굴하여 이중 1,601개 사무를 지방이양 확정하였다.

<표 2-459> 부처별 이양확정사무 현황

(단위 건)

중앙부처	계	국 토 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 기족부	농림수산 식품부	지식 경제부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 안전부	기타
확정사무	1,601	350	212	206	175	118	113	71	356

현재,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한 1,601개 사무 중 1,577개 사무가 이양 완료되었다.

(6) 앞으로 지역경제, 도시계획 등 기능중심의 포괄적 과제 발굴 및 지방이양으로 지방역량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장 김영안,
조직관리담당 전영재, 담당자 이길용

11. 지역인재 양성

11-1. 전남도립대학 운영

가. 담양대학 설립 · 운영

광주지역 인근 도민들의 공업전문대학 설립 여망이 매우 높아 '92년 대통령 선거시 김영삼 전대통령께서 담양에 국립전문대학을 설치할 것을 공약하였고, '93. 12월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한 결과, 국립대학 설립은 국가재정 여건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설립 비용과 개교 후 5년간 운영비의 일부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도립 전문대학을 설립키로 결정되었다.

'94년 4월 전라남도의회에서 대학설립 동의안이 의결되고, 교육부로부터 공업계열 10개학과, 편제정원 1,600명, 입학정원 800명, 국비 120억원을 포함한 총 213억원의 투자규모인 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동년 12월에 전라남도립담양공업전문대학설치및운영 조례가 제정 · 공포되었다.

도립담양대학은 '97년 11월 27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대학설립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게 되었고, '98년 2월 28일 10개학과에 신입생 823명을 모집 '98년 3월 13일 개교하여, 2001년까지 5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02. 2월 제3회 졸업생 289명을 배출하여 84%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도립 담양대학 설립 현황

- 설립인가 : 1997. 11. 27 (교육부)
- 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62번지 일원
- 사업비 : 19,489백만원(국비 12,000, 도비 7,489)
- 교직원 : 정원 102명(학장 1, 교수 70, 조교 10, 직원 21)

- 관리기구 : 2과 3담당, 2부속기관, 1부설연구소
 - 과 (계) : 교학과(교학계), 서무과(총무계, 시설장비계)
 - 부 속 기 관 : 도서관, 전자계산소
 - 부설연구소 : 산학협동연구소
- 시설규모 : 부지 26,160m², 교사 8개동 16,966m²
- 설치학과 및 정원 : 6개학부 6개학과 편제정원 1,600명, 입학 정원 800명
- 개 교 일 : 1998. 3. 13

나. 남도대학 설립 · 운영

우리 도에서는 장흥지역 주민들의 2차례에 걸친 청원과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설립에 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95년 7월 전라남도 의회 제104회 임시회에서 「장흥지역 공립산업전문대학 설립동의안」을 의결받아 8월에 행정자치부에 대학설립 승인을 요청하여, '96년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9개학과 편제정원 800명, 입학정원 380명 규모인 도립장흥전문대학을 도 직속기관으로 설치 승인을 받았다.

'97년 4월 대학설립에 필요한 「전라남도립전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 공포하였고, 11월 장흥군에서 설립부지 68천평을 도에 기부 채납하여 공공시설입지 지정을 마쳤으며, '98년 1월 19일에 공사를 착수하여 '99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도립장흥대학이 '장흥'이라는 지역성으로 인한 구조적인 신입생 유치부담을 덜고, 명실공히 '국토의 서남부권 거점대학'으로 우뚝 발돋움 할 수 있도록 21세기 다매체 · 다문화 환경 추세에 걸 맞는 교명으로 변경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8조 및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명을 "장흥대학"에서 "남도대학"으로 2000. 8. 2 변경하였다.

'99년 2월 신입생 380명을 모집하여 3월 12일 개교하여, 2001년도에 제1회 졸업생 202명과 2002년도에 1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90%가 취업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에서 3년연속('99~2001)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향토산업기반 거점전문대학 육성 등 명문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도립 남도대학 설립 현황

- 설립인가 : '98. 11월 (교육부)
- 위치 :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89번지 일원
- 학교부지 : 222,535m²(건물 7개동 16,333m²)
- 사업비 : 12,000백만원(전액 국비)
- 교직원 : 정원 66명(학장 1, 교수 38, 조교 11, 직원 16)
- 관리기구 : 3과 3담당, 2부속기관
 - 과(계) : 교학과(교무담당), 산학협력과, 서무과(총무담당, 시설장비담당)
 - 부속기관 : 도서관, 전자계산소
- 설치학과 및 정원 : 5개계열 11개학과 860명(학년당 430명)
- 개교일 : '99. 3. 12

다. 도립대학 통합 개편 추진

1) 추진배경

지역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률 급감으로 대학 자생능력이 상실되어 도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양 대학의 개편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 그 동안 추진상황

'02년부터 '03년 9월까지 합리적인 대학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

구용역을 추진하였고(용역기관 : 한국지역능력개발원)

‘03년 2월 대학통합지원팀 및 통합실무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또 한 양 대학교수협의회를 통하여 통합 결의하였으며

그리고 ‘03년 8, 9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속기관설치 정원 변경 승인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합인가 승인을 득하였으며 통합 준비단을 발족 도의회 대학운영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였다.

‘04년 2월에 통합대학 학장 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통합대학 교직원을 재배치하여 3월1일에 통합 남도대학으로 개교하였다.

현재,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홍캠퍼스 유휴시설은 학교기업 NIEC(남도국제교육원), 천연자원연구소, 한방진흥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 개교 현황

- 통합인가 : ’03. 9. 4 (교육부)
-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장흥군 안양면(2 캠퍼스)
- 교 직 원 : 정원 85명(학장 1, 교수 53, 조교 15, 직원 16)
- 관리기구 : 1과 2실 3담당, 3부속기관, 1단
 - 과 : 행정지원과
 - 실 : 학사지원실, 인력지원기획실
 - 부속기관 : 도서관, 정보지원센터, 기숙사
 - 단 : 산학협력단
- 시설규모 : 부지 475,779m², 건물 25동 38,927m²
- 개 교 일 : 2004. 3. 1
- 교명변경 : 남도대학 ⇒ 전남도립대학(2008. 4. 1)
- 학생현황
 - 정 원
 - 1학년 : 20개학과 980명

- 2학년 : 20개 학과 980명
- 3학년 : 1개 학과 70명(유아교육과)
- 정·현원 대비 현황(2009. 4월 기준)

정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정원	현원	비율	정원	현원	비율	정원	현원	비율
2,030	1,766 (87%)	980	913	93%	980	769	78%	70	84	120%

○ 연도별 신입생 모집률 및 졸업률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신입생모집률	89%	91%	96%	
졸업생취업률	80%	80%	83%	

2008년 주요 추진 성과

○ 중앙도서관 개관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09m² 규모의 중앙도서관을 신축하였으며, 개인별 심화 학습을 위한 청람재, 영상정보실, 멀티미디어실등 다양한 부대시설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지식습득에 기여하고 있다

○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

재정자립 확충과 대학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2008년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총사업비 5,716백만원)을 통해 삼성전자 외 169개 업체와 6개 지자체 연계를 통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및 강화로 신기술 개발 참여 등 지역 산업체

의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졸업생 취업률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틀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의 지속 확충으로 교수 연구능력 향상과 재학생 및 신입생 장학수혜 확대로 학업동기 부여 및 면학분위기 고취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은 2004년 광주·전남·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04~'09년도)되었고, 사업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재정 취업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인·적성검사 실시, 취업상담실 상시 운영, 전문가 초청 취업특강 및 사례발표, 학과별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한 산업체 맞춤형 취업캠프, 개인별 취업포트폴리오 작성 및 지도, 산업체 취업인턴사원제 지원, 대학창업강좌 개설, 자격증 취득 및 취업준비를 위한 심야학습실 「청람재」 운영, 상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잡카페 및 취업홈페이지 운영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 장학금 확충

장학기금의 적극적 조성 및 안정적 관리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2008년에는 입학, 성적우수, 공로장학금 등 교내장학금 8개종류 1,202명 432,691천원을 지급하였고, 인재육성, 농촌희망재단, 담양장학재단 등 교외장학금 10개종류 430명 400,23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재정지원사업의 적극 유치로 누리조선사업등 364명 206,191천원 지급하는 등 총 1,996명 1,039,118천원을 지급하여 수혜율 63%를 달성하였다. 장학금 운영의 내실화로 학업동기를 부여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수혜 확대로 학비 부담을 경감을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

전라남도가 설립, 운영하는 도립대학으로서 지역 전략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취업률을 극대화 하고,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과 운영, 재정자립을 위한 대학발전기금 확충등으로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의 위상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된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교원의 연구 활동 활성화 및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1인 1전공 자격증 취득으로 명실상부한 전문기술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 행정지원과장 엄순섭,
관리담당 김원곤, 담당자 이병국

11-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추진

가.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방안 수립 추진

(1) 추진배경

정부의 대도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이 악화 되어 자녀 교육 때문에 농어촌의 인구유출이 지속되면서 농어촌은 공동화로, 도시는 과밀화로 양 지역에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농어촌 교육문제는 대표적인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런 교육문제를 정부나 교육당국에만 의지한 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입장에서, 농어촌 교육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

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전남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안」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지난 2007년 9월부터 우리도와 도교육청, 전남발전연구원,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계획수립방향을 설정하고,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운영실태 등 교육환경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농어촌교육의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8년 2월에는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등 300여명이 모여 농어촌교육여건개선 심포지엄을 갖고 현 실태와 다양한 대안을 토의하였다.

농어촌교육여건개선방안 시안이 마련된 2008년 9월에는 교사,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남농어촌 교육이 처한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며, 인재육성정책자문위원회 인재육성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교육감 그리고 도의원과 교육관련 각계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교육여건개선방안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3)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방안 주요내용

농어촌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자녀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안에는 5대 정책과제와 14개 주요과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초·중등 선진화학교 육성 지원방안으로, 지역중심 초·중 선진화 학교 육성지원, 특성화 교육트랙을 운영하는 우수고 육성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교 육성 지원, 도서벽지 미니 초·중 통합학교 활성화 지원 등 4개 개선 방안
- ② 지역중심 교육여건 개선지원 방안으로, 시군별 스튜던트 호스텔(기숙사)건립, 방과후 학습센터 운영지원, 농어촌 학교 지역문화거점 복합화 사업 추진 등 3개 개선방안
- ③ 농어촌 교사, 학생, 학부모 지원방안으로, 농어촌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사지원, 전남인재육성재단 및 시군별 장학재단 활성화, 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개선방안
- ④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기관 육성으로, 유·초·중·고 통합형 캠퍼스 시범사업 추진, 전문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중·고등 대학원 연계 교육기관 육성 등 2개 개선 방안
- ⑤ 지역단위 협의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건의로, 농어촌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체 및 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2개 개선방안

(4) 향후 추진계획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소요예산과 각 과제별로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세부 사업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등 도교육청과 역할을 분담해 농어촌 교육현장에서 변화를 실감 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교육지원담당 김경호, 담당자 고미경

나.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지원

(1)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화·복지시설의 부족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입안한 사업으로서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은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 학생의 도시유학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

우리도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 사업은 2004년 장흥고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17개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원어민강사 인건비, 교육시설의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수혜 확대 등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당 150백만원(도비 750, 군비 750)을 3년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육성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받게 된다.

농어촌1군 1우수고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7개 학교(1군 1교)
- 사업기간 : 2005~2010년
- 지원금액 : 2,550백만원(도, 군 각 50%)
※ 학교당 150백만원/3년
- 지원내용 : 교육여건개선사업, 기숙사 및 관사운영 등

○ 2008년까지 추진실적

- 대상학교 : 17개교('04년 1, '05년 1, '06년 4, '07년 9, 08년 2)
- 지원액 : 1,900백만원(도비 950, 군비 950)
※ 지원완료 : 6개교(구례고, 보성고, 화순고, 장흥고, 강진고, 장성고)

○ 2009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1개 학교(담양고, 곡성고, 고흥고, 해남고, 영암고, 현경고, 함평고, 영광고, 완도고, 진도고, 도초고)
- 사업비 : 550백만원(도비 275, 군비 275)
※ 2010년 : 2개교(담양고, 영광고) 100백만원(도비50, 군비50)

(3) 향후 추진계획

농어촌 1군1우수고 육성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발전 모델을 정립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장, 자치단체장, 지역 유관기관, 지역 주민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교육지원담당 김경호, 담당자 고미경

11-3. 영어공교육 활성화 추진

가. 영어체험캠프 운영

(1)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의 영어 및 국제화 교육은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열세에 놓여있다. 특히 영어사교육 급증 및 지역·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농복합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 과제는 대도시와의 영어학습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영어교육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히 중앙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넘어 농어촌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영어학습의 차원을 넘어 농어촌 학생들이 외국인과 집중적으로 교류하는데 필요한 체험의 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어 공교육은 교육청, 사교육은 학원이 주도하는 현실에서 영어 공교육 최적의 대안으로 영어체험캠프 운영하게 되었다.

(2) 추진체계

영어체험캠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이다. 즉, 도, 시군,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지역대학, 미국대학, 원어민 강사, 참가학생, 국내교사, 언론매체 등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도는 2007년에 도지사가 직접 미국 자매결연 도시인 오레건주를 방문해 포틀랜드주립대와 영어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08년에는 미국 미주리대와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각 대학교가 선발한 우수한 원어민강사를 자원봉사자로 지원받게 되어 우리도만의 차별화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영어체험캠프 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캠프장소 선정 및 시설점검, 원

어민 강사 확보 및 지원, 운영성과 분석 등 사업을 총괄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제작, 참가학생 선발, 교사선발, 원어민 강사 사전교육, 교사 및 원어민 강사 복무관리 등 운영 총괄을 맡았다.

(3) 운영개요

영어체험캠프는 '08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1기와 제2기로 나눠 휴무없이 각각 10일간 운영되었다. 제1기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8월 1일, 제2기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되었다. 참가 학생은 초등학교 636명, 중학교 636명 등 총 1,272명이 참여했다. 이들 학생들은 크게 4개 권역별로 나눠 3개 대학과 도학생교육원에서 운영되었다.

【권역별 참가 학생 및 영어체험캠프장소】

-
- 전남과학대 : 336명(곡성42, 구례40, 고흥125, 보성68, 장성61)
 - 전남도립대 : 336명(담양54, 화순144, 함평44, 영광 94)
 - 대불대학교 : 336명(장흥59, 강진50, 무안72, 영암88, 신안67)
 - 도학생교육원 : 264명(해남118, 완도94, 진도 52)
-

참가교사는 캠프장 4곳에 원어민55명, 영어교사104명, 지도교사 32명, 보건6명 등 총 201명이다. 원어민 강사는 미주리대 34명, 포틀랜드주립대 21명으로 전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들 대학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다. 특히 원어민강사들의 섭외 및 관리는 영어 체험캠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입국과 더불어 사전교육, 간담회, 캠프 참여, 도내투어 및 환송간담회, 출국 등 일정을 구체화했다.

(4) 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은 추진체계와 예산 등 모든준비과정이 한데로 집약된 중요 부분이다. 그래서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위해 1반에 11~14명(도학생교육원 11명, 나머지 캠프소는 14명씩)으로 12개반을 구성했다. 이들의 캠프수업은 미로관, 신체관, 가정관, 직업관, 취미관, 자연관, 요리관 등 12개 테마 코너에서 현장 체험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 테마별 부스를 순회하며 원어민강사와 체험·회화 학습을 하도록 구성했다. 남녀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각 조가 매일 2개의 테마코너를 돌면서 원어민교사와 밀착 접촉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을 키우는 한편, 중간 중간 학생들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게임, 노래, 요리실습, 챔트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했다.

특히 한국인 영어교사는 원어민 강사와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지도교사 32명과 보건 6명은 학생들의 지도관리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변에서 이들을 보조했다.

(5) 영어체험캠프 성과

지난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2년째를 맞이한 2008년 전남영어체험캠프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열악한 영어학습 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도 많은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크게 '농어촌 영어공교육 새로운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 636명, 중학생 636명 등 모두 1,272명의 학생이 영어체험캠프에서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상황별 체험위주의 영어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원어민강사 55명도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 영어 배우기

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과 긍지를 갖는다면서 내년 캠프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먼저 영어체험캠프는 “농어촌 영어공교육 새 모델로 평가”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언론은 농어촌지역 학생을 위한 무료 영어캠프가 농어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어촌의 열악한 영어교육 환경을 저비용으로 극복하는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고 지역민들도 크게 반기며 호응하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다.

특히 영어체험캠프는 농어촌 학생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원어민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와 직접 대면하여 영어체험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학연수와 같은 효과를 거두었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캠프 참가학생 입소전·후 시험평가 결과】

-
- 초등 6년 : 71.67점 → 75.92점 4.25점 향상
 - 중등 2년 : 75.99점 → 85.45점 9.46점 향상

▷ 캠프 수료시 영어 촌극 공연, 기초회화 가능단계까지 향상효과

또한 미국 대학과의 교육교류협력 협약 체결로 우수 원어민 강사 확보 체계 구축 및 원어민강사의 열성적인 학생지도로 교육의 질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에 이어 올해에 미주리대학과 교육교류협력을 체결하여 보다 우수하고 능력있는 원어민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우수한 원어민강사가 확보됨으로써 학생지도를 위한 강사의 자질과 교육의 질이 타시도 등에서 운영하는 캠프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원어민교사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도내 초·중등학교 영어교사와 원어민강사가 함께하는 협력 수업 진행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영어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 편 다소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영어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 의욕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6) 향후 추진계획

영어체험 캠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대상학생이 군단위 농어촌지역으로 한정되어 도농통합지역의 농어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09년에는 5개 캠프에서 22개 시군의 1,560명(초등 6년 780명, 중등 2년 780명)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도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과 교육대상의 확대로 사교육에 침식되고 있는 영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추진

(1) 추진배경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외국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해외어학연수를 위해서 지난 5월에 도지사가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미주리주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도와 미주리대학교간에 교육교류협력을 체결하였다.

(2) 추진성과

중학생 어학연수는 2008년 7월 전국에서 영어체험캠프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영어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22명을 선발하였으며, 우수교사 2명은 헌신적으로 영어체험캠프 활동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은 미국 미주리대의 주관으로 미국의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어학심화 학습과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특히 영어교육이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영어환경 조성으로 재미를 갖도록하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대화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으로 성과를 크게 거뒀다.

농어촌의 열악한 영어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을 미국어한여수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 세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록 가정평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면 글로벌 우수인재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원어민과의 맞춤식 영어학습과 체험활동 등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자신감 배양에 기여하였다.

중학생 어학연수 추진개요

- 연수기간 : 2008. 12. 22 ~ 2009. 1. 16(4주)
- 연수기관 : 미주리대학교(어학프로그램)
- 사업비 : 161백만원(1인당 6,700천원)
- 연수인원 : 24명
 - 학생 : 22명(저소득자녀 6, 영어캠프 13, 경시대회 3)
 - 교사 : 2명 (영어캠프 유공)

(3) 향후 추진계획

해외 어학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

생과 학부모 학교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하겠으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이고 의욕이 있는 학생위주 선발로 효과에 극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지역 농어촌 학생들의 영어 공교육 여건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글로벌 해외연수계획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교육지원담당 김경호, 담당자 김영심

다. 농어촌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운영

(1) 추진배경

대부분이 농어촌 학교로 교육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원어민교사가 근무를 꺼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교육을 받으려 해도 원어민강사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학원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선뜻 근무를 기피하는 도서벽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를 추진하였다

(2) 추진성과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배치를 위해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미주리주대 등과 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원어민 교사를 모집하여 도서 벽지 11개 학교에 배치하여 도서벽지 농어촌영어 공교육 강화의 새 모델을 제시하였다.

원어민 교사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모집해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전국 처음으로 도지사가 농어촌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국 미주리주대와 포틀랜드대 등을 직접 방문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 추진하였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교사 11명을 선발해 신안 지명중, 완도 노화중, 구례 산동중 등 도서벽지 11개 학교에 배치되었다.

(3) 향후 추진계획

농어촌 교육현장에서 원어민강사에 대한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조해 원어민교사가 없는 도서벽지 학교에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년간 교사경력이 있는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 은퇴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교류협력을 맺은 포틀랜드 대와 미주리주대 등과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교육지원담당 김경호, 담당자 김영심

11-4. 인재육성재단 운영의 내실화

가.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

우수한 지역인재가 학업에 전념하여 자아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300억원 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지역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였다.

지역인재육성기금은 주로 도, 시군의 출연으로 조성되었으며 그 이자수입으로 지역의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8말 현재 총 368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그 동안 109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8년말 현재 299 억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그린전남 인재장학생, 그린전남 복지장학생, 도정발전 유공장학생 등 3개 분야에서 14,045명에게 109

억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08년도 지원실적은 876명에게 8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460>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지원액				현재액	
	누 계	2008년	누 계		2008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	36,895	3,195	14,045	10,987	876	847	25,908	

나. (재)전남인재육성 재단 설립 운영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지원하고, 또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21세기 전라남도를 빛낼 중추적인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전남인재육성재단을 2008년 12월 24일 설립하였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재경호남향우회 허경만 회장을 비롯하여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 지역의 중견기업 대표와 현대삼호중공업, GS 칼텍스 등 지역소재 대기업 계열회사 대표 및 농협, 광주은행 등 금융계 인사, 언론인 등 15명이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사장에는 도지사를 선임하였다.

법인의 기금 목표액 조성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는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원액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농어촌학생 해외어학연수를 비롯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 2-461> 추가 300억원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소계	'08	'09	'10	'11	비고
합계	300	40	60	90	110	
도	66	9.2	14	20.4	22.5	
시·군	117.8	16.4	25	36.2	40.1	
이자	51.2	9.4	11	13.4	17.4	연4%
기부금	65	5	10	20	30	

다. 향후 추진계획

전남인재육성재단은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으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자 예우를 위해 장학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민간 기부금 모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장학사업에 도민, 출향향우,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교육지원담당 김경호, 담당자 오종우

11-5. 평생학습 활성화

가. 추진배경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2000년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과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제정 완료되어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

다. 2008년 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역할과 책무가 규정됨에 따라 도차원의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 및 각종 평생교육 관련 제도의 도입·세부운영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2-462> 추진 제제별 역할

구 분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명 칭	시·도 <u>평생교육협의회</u> (지자체 조례 제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u>평생교육협의회</u> (지자체 조례 제정) 시·군·구 평생학습관
기 능	위 원 회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조정, 심의, 유관기관 연계 등
	전담기구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구 성 (위원회)	의 장 : 시·도지사 부의장 :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위 원 : 20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의장 : 기초단체장 위원 : 12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나. 추진내용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2012)'에 기초하여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2008~2009년도)'을 수립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경비 보조 및 지원사항 등이 명시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다.

도내 주요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목포공공도서관이 전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4개의 평생학습관(평생교육관 2, 공공도서관 16, 교육문화회관 1, 학교 5), 7개의 대학평생교육원

(목포대학교·전남대(여수)학교·순천대학교·순천청암대학교·동신대학교·전남과학대학·대불대학교)이 지정되어 지역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개 도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된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주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7개 도시》

- 순천(03년), 목포(신안·무안, 04년), 여수·광양·곡성(06년), 강진·영암(07년)
-

또한, 200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행복의 반올림, 희망의 어울림 - 2008 순천’이라는 주제로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순천시(순천만)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순천평생학습축제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전국평생학습기관과 단체, 시설 등이 참여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 교육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세계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게 되었다.

다. 향후 추진계획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계획이며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운영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박윤식,
교육지원담당 김경호, 담당자 김판길

1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12-1.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가. 계획수립의 배경

참여정부 시절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했다.

즉,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은 세계적 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행정구역간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였으며, 중앙주도의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인해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을 통해서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 5+2 광역경제권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나. 계획 수립 필요성

세계화에 따른 지역중심의 장소 경쟁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생산 공간의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광역적으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단위의 사업 발굴 및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광역 단위의 추진이 절실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 생산, 통행, 여가공간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하는 등 공간이용에 대한 수요와 현안문제가 광역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지역간 협력을 토대로 광역경제권별 발전전략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시책 및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앞으로 개정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법정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기존의 시·도별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이 갖고 있던 한계와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보완·대체하며, 광역경제권별로 비전과 사업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적·종합계획

단순한 시·도 행정구역의 초월이 아닌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전략적 지역계획으로서, 광역경제권별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발전전략 수립이며,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력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SOC 정비 확충,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3)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계획

정부가 향후 개정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시행계획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역발전계정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해

5년간의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앞으로 포괄보조금으로 개편될 지역 개발계정 사업을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기획하고 사용할지를 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서 제시하게 된다.

라. 계획의 주요내용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경제권의 발전 비전과 목표,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 분석,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지역산업육성,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문화·관광 육성, 광역경제권 자원의 공도이용·관리 등), 주민의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추진방안 및 평가 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8. 7. 21일자로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전국토를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 등), 2008. 9. 10일 발표한 제2차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선도프로젝트 50조원, 지역산업 육성 5.5조원, 거점대학 육성 5천원 등 약56조원), 2008. 12. 15일 발표한 제3차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지역경제 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등 약42조원) 등도 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계획이다.

마. 향후 계획수립 일정

(1) 호남광역경제권 수립 연구팀 구성

호남권의 시·도 공무원, 시·도 연구원, 시·도 전략산업기획단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도별 동수로 연구팀을 구성하게 되며, 총 54명(전남 18, 광주 18, 정북 18)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 추진 일정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팀이 구성되면, 연구팀간 워크숍, 권역간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한 중앙부처·권역간 합동워크숍, 지역발전위원회의 주관 합동보고회, 균특법이 개정되면 구성될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등을 걸쳐 호남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 최종적으로 2009. 하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미래전략기획단 광역경제권팀장 김병주,
광역경제권담당 이춘봉, 담당자 김옥남

12-2.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가.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 구상 대응

(1) 남해안 선벨트 구상 개요

'07.8.5일 이명박대통령 후보는 광주에서 '남해안시대를 여는 선벨트 구상'이라는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남해안을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축으로 그리고 영호남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대 성장 거점

- 목포권 :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 다도해역 연안
- 남중권 : 전남 순천, 여수, 광양 및 경남 남해, 하동 사천
- 부산권 :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 한려수도해역 연안

○ 거점별 육성 전략

- 목포권 : 관광휴양, 항공우주, 신소재, 농식품, 전기전자산업 등
- 남중권 : 조선, 항공, 기계화학, 항만물류, 관광휴양, 의료요양 등
- 부산권 : 영상문화, 관광휴양, 금융비즈니스, 교육·R&D 등

(2) 남해안 선벨트 기본구상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응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08.7.28~10.27까지 3개월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라남도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선벨트 구상에서 전라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8.27일 선벨트 연구진이 도청을 방문하였을 때, 선벨트 구상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전략을 종합적으로 발굴·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선벨트 구상의 비전 및 개발방향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3) 남해안 선벨트 구상에서의 전라남도의 주체적 역할 확립

이러한 노력 결과 '08.12.15일 발표된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역할에 커다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초광역개발권* 중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경우 민선4기 들어 전라남도가 추진해왔던 정책방향과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검토대상 사업도 전라남도가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 5대 초광역 개발권 : ①남해안 선벨트 ②서해안 신산업벨트,
③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④남북교류벨트 ⑤ 내륙특화벨트

** 남해안 선벨트 비전 및 개발방향

- 비 전 : 동북아 해양관광·물류·경제중심지 건설
- 개발방향
 - 항만·물류산업과 국제무역·금융거점 육성
 - 남서권 글로벌 관광레저도시 조성
 - 물류·산업·휴양 복합거점 개발
 - 남해안크루즈 등 선벨트 통합문화관광권 개발

- 주요 검토대상 과제(서해안 신산업벨트 검토과제 일부 포함)
 - 경제자유구역 확대(부산·진해, 광양)
 - 남서권 해양관광레저 기업도시 활성화(영암·해남)
 - 남해안 일주 크루즈 관광 및 해양스포츠 거점 개발
 - 동서 6축 철도망(목포~순천~진주~마산~부산) 구축
 - 부산·울산·경남 맑은 물 공급(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 추진
 -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조성
 -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 남북 2축(서해, 전라축) 철도망 구축
 - 호남고속철도(목포~광주~익산~오송) 완공시기 조정

(4) 향후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 구상 추진 전망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포함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추진할 근거 법을 마련한 뒤 '09년 말까지 실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로운 법제정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 해안권을 아우르고 있는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근거 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부산·전남·경남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실행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앞으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실현수단으로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기획단 광역경제권팀장 김병주,
남해안개발담당 성치풍, 담당자 이주현

나.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1) 추진경위

'05.2.4일 전남·부산·경남 시·도지사는 경남 통영에서 남해안권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경제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협력을 천명하고 남해안 시대를 선언했다. 같은 해 9.12일에는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남해안시대를 구현할 법적기반이 될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06. 8월~9월까지 남해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로 3개의 남해안발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되었다. 이후 1년 4개월여 동안의 국회심의 끝에 마침내 '07.11.22일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을 포괄하는 초광역 개발법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지방에서 발의하여 입법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특별법을 계기로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제도적 기반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차근차근 마련되어 갔다.

(2)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5조는 해안권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같은 남해안권인 부산·경남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1) 전담조직 구성 및 정비

우선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실에 임시조직인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 을 구성하였다. 기획단은 종합계획 반영사업 발굴, 부산·경남과의 공동용역협정 체결,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 운영기간 : '07. 12. 11 ~ '08. 7. 31
 - 구성 : 단장(기획관리실장), 부단장(정책기획관), 단원 13(실과장)
 - 운영방법 : 정책기획관실(기획담당)에서 운영 총괄
- ※ 단원 : 투자정책관, 경제정책·과학기술·전략산업·관광진흥·관광개발·스포츠산업·농업정책·해양항만·환경정책·수질개선·지역계획·도로교통과장

그러나 기획단만으로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새 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구상 등 지역발전정책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도 점차 커져갔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마침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총괄할 광역경제권기획단이 정책기획관 산하에 신설되었다.

- 발족일 : '08. 8. 1
- 구성 : 팀장(4급), 5급 2명, 6급 이하 5명

2)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08.3~6월까지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 주관으로 4개월간 도, 시·군 및 전남발전연구원 대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사업은 134개 프로젝트, 406개 세부사업으로 도 자체 사업 발굴보고회('08.6.26)와 도지사 주재 16개 해안권 시장·군수회의('08.6.30)를 거쳐 확정하였다.

'08.6.19일에는 전남·부산·경남 3개 시·도가 공동용역협정을 체결하고 계약방법 등 세부사항을 합의하였다. 계약방법은 지방계약법 제28조에 의한 3개 시·도간 종합계약으로 하기로 하였다. 용역예산은 전남·부산·경남이 6억원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23억원으로 결정하였다.

용역계약은 '08.7.28일 3개 시·도와 국토연구원간에 체결되었다. 특히 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되 외국계 컨설팅회사 1개사와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을 공동 참여시킨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종합계획에 국제적인 시각과 지역의 특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역기간 : '08. 7. 31 ~ '09. 10. 30(15개월)
- 용역금액 : 22억 1천원(전남·경남·부산 각 566,667천원, 국비 5억원)

용역에 착수한지 5개월 만인 '08.12.24일에는 도의회 초의실에서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를 통해 국토연구원은 남해안권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큰 틀에서 남해안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거시적이고 참신한 부문별 발전전략을 입안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 구상과 긴밀한 연계를 주문했다.

3) 향후 계획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09년 상반기 중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9월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9. 10월말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전략기획단 광역경제권팀장 김병주,
남해안개발담당 성치풍, 담당자 이주현